발전기금안내

2020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Kyung Hee University Donation Report No.13

경희대학교

CONTENTS

1. 총장 인사말 **3**

2. 대학 소식 4

3. 발전기금 현황 6
   약정현황
   모금현황
   사용현황

4. Focus 주요소식 8
   – 기부자 Story
   – 온라인 기부 캠페인 Story

5. Project 발전기금 프로그램 안내 40
   – KH 미래과학관 신축기금
   – META-KHU 미래대학기금
   – 아레테 클럽
   – 크라운관 객석 기부 캠페인
   – A&D홀 객석 기부 캠페인
   – 경희사랑 나눔 캠페인
   –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 매그놀리아 하우스(경희대학교 후원의 집) 안내

6. Giver 기부자 명단 58

7.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64

8. 기부 예우 65

9. 기부참여 안내 66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학문과 평화의 전당'**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도약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경희대는 1949년 설립된 이래 창학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대학의 핵심 가치 '학문과 평화'를 바탕으로 대학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왔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요건을 재정의하고 학술기관이자 사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경희대는 국내 최고 명문사학의 위상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개교 60주년 이후 국내외 각종 대학평가가 경희의 '경이로운 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의 연구 역량, 대학의 국제화, 교양교육 혁신,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대학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진전이 대학의 존재 이유를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뉴 노멀'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가속도가 붙은 4차 산업혁명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구 평균 기온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혼란기입니다.

하지만 경희대는 이와 같은 대전환을 지난 세기 중후반부터 예의주시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지구공동사회를 모색해왔습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는 슬로건이 경희의 과거와 미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류 문명을 향한 경희의 담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셨다면 경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희는 이제 개교 80주년을 넘어 '경희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명문으로 비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부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성원이 만족하고 사회가 존중하는 대학,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가치와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다운 대학.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경희 구성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경희대학교 총장 **한 균 태**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인류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와 생태, 환경 재앙과 이로 인한 식량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희망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희는 이를 위해 '지구적 존엄성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창학 초기부터 펼쳐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지구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아래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 발전하여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롭게 약진합니다.

2021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경희대학교가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21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 2021)'에서 17개 전 항목에서 순위권에 진입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온 노력을 다각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영향력 평가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는 데 대학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들여다 보는데, 경희는 2개 목표에서 국내 1위, 3개 목표에서 국내 2위, 3개 목표에서 국내 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산업화 · 혁신 · 인프라 항목(SDG 9) 세계 19위 · 국내 3위, 양질의 일자리 · 경제 성장 항목(SDG 8) 세계 46위 · 국내 3위, 불평등 해소 항목(SDG 10) 세계 97위 · 국내 2위에 오르며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조명 받았습니다. 학술기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경희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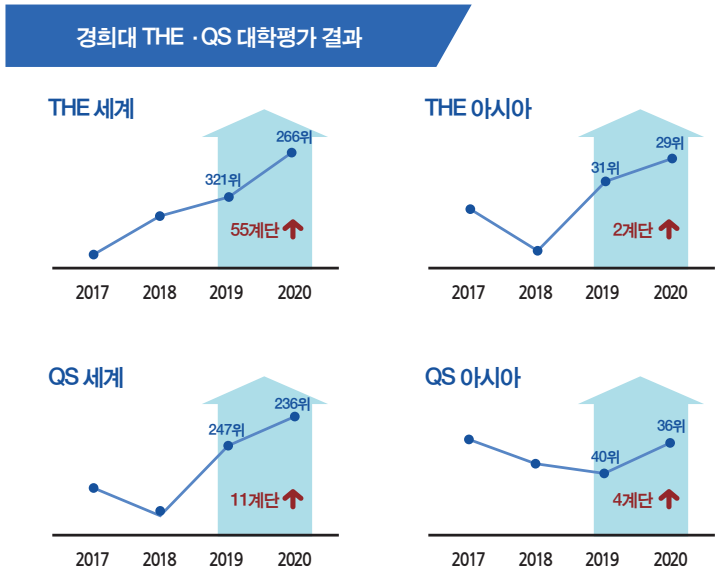
세계 최고 명문을 향한 경희의 도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끊임없이 혁신하며 도약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경희는 2020년 발표된 THE 세계대학평가, THE 아시아대학평가, QS 세계대학평가 등 주요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논문 피인용과 논문 수 등 연구 부문에서 질적, 양적 동반 성장을 이뤄낸 결과, 경희의 세계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Scopus 연구 데이터 분석 결과, 경희는 연구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FWCI(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지수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의 2020년 FWCI는 1.24로 국내 주요 종합대 가운데 서울대(1.32), 고려대(1.31), 성균관대(1.28) 다음으로 높습니다. FWCI는 피인용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FWCI 1.24는 논문이 전 세계 평균 대비 24% 더 인용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간 대학 본연의 책무인 학술의 탁월성에 주력해온 경희가 연구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거둔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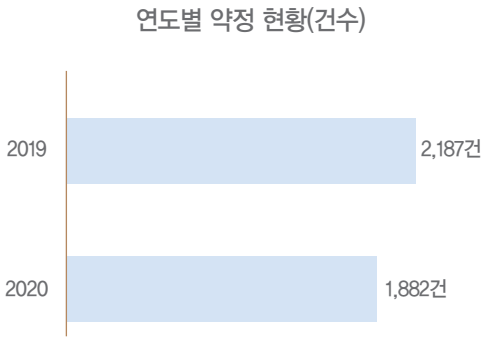
경희는 학술의 탁월성 위에 세계 명문으로 도약하고 그 성취를 실천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연구, 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해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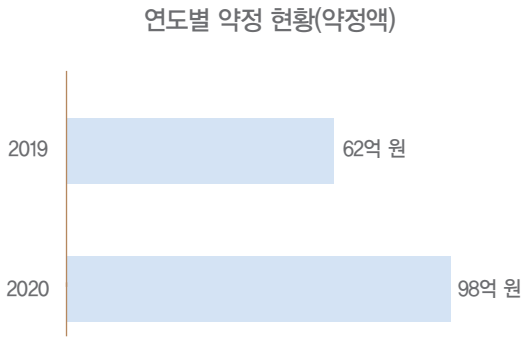
2020 주요 대학평가 결과



목적사업별 기금 약정 현황 (2019.03.01.~2021.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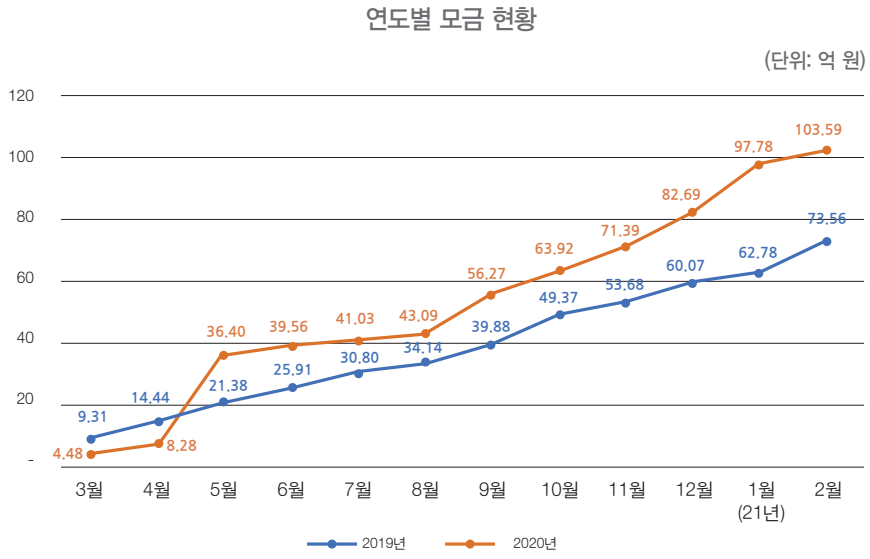
구분	건수(건)		약정액(원)	
	2019	2020	2019	2020
장학기금	581	910	3,751,783,145	3,639,019,728
연구기금	6	2	56,560,316	105,000,000
건축기금	28	68	91,610,010	2,105,384,296
특정목적기금	1,572	902	2,348,409,721	3,999,337,081
합계	2,187	1,882	6,248,363,192	9,848,74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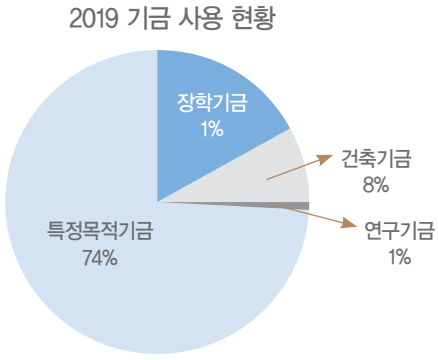
목적사업별 기금 모금 현황 (2019.03.01.~2021.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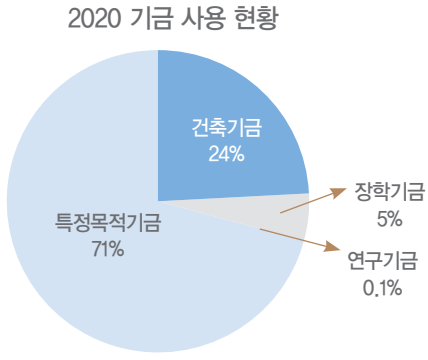
구분	기부액(원)	
	2019	2020
일반기부금	2,328,925,980	2,952,897,470
지정기부금	4,663,227,818	6,799,320,150
연구기부금	50,660,316	106,600,000
현물기부금	313,223,444	500,899,042
합계	7,356,037,558	10,359,716,662



목적사업별 기금 사용 현황 (2019.03.01.~2021.02.28.)

구분	사용액(원)	
	2019	2020
연구기금	106,607,353	25,000,000
건축기금	833,679,200	4,883,069,067
장학기금	1,862,278,755	941,813,300
특정목적기금	7,864,769,308	14,526,823,278
합계	10,667,334,616	20,376,705,645





| 기부자 Story |

“코로나19, 힘듦, 맞들어 이겨내자!”

지난 11월 4일(목), 코로나19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경희는 지난 10월 말 양 캠퍼스 약 2천 명의 학생에게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장학금은 캠퍼스 인근의 경희후원의 집과 경희후배사랑 캠페인 등을 통해 마련했다.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약 2천 명 학생에게 약 5억 원 지급

‘경희후원의 집’ , ‘경희후배사랑 캠페인’ 등으로 장학금 마련
11월 4일(목), 코로나19 장학금 전달식 및 캠페인 참여 동문 만남 진행

2021
11

11월 4일(목), 반가운 손님들이 서울캠퍼스 본관을 찾았다. 캠퍼스 인근에서 음식점과 꽃집 등을 운영하는 ‘경희후원의 집’의 대표들과 ‘힘내라 경희 후배들’ 온라인 모금 캠페인 영상에 참여한 하태수(약학과 77학번, 백두산약국 대표) · 육근병(미술교육 78학번, 미술작가) · 오재욱(체육학과 94학번, 스피도코리아 대표) · 정경(성악과 01학번, 성악가) 동문 등이 그들이었다. 한균태 총장과 (서울)대외협력처 윤여준 처장, (서울)미래혁신원 박재홍 단장 등이 그들을 맞았다. 서로 다른 배경의 방문객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본인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처한 학생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2013년부터 모은 경희후원의 집 기금, 코로나19로 힘든 학생 위한 장학금으로

이날 본관에서는 두 가지 행사가 진행됐다. 앞서 설명한 경희후원의 집 대표들이 참여한 '코로나19 장학금 전달식'과 '경희후배사랑 기부 캠페인' 응원 영상 참여 동문 초청 행사가 그것. 경희대는 지난 10월 말 양 캠퍼스의 약 2천 명의 학생에게 약 5억 원의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서울캠퍼스는 경희후원의 집 기금을 활용했고, 국제캠퍼스는 경희후원의 집 기금과 같은 사전에 모금한 장학기금과 경희목련 희망 장학기금 등을 사용했다.

이 장학금은 '생활장학금'과 '실험 · 실습 · 실기 장학금'으로 나눠 지급됐다. 생활장학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5~10분위까지 학생 중 선발했다. 실험 · 실습 · 실기 장학금은 실험 · 실습 · 실기 수업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했다.

코로나19 장학금 전달식에는 한균태 총장과 윤여준 처장, 박재홍 단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남우석 회장, 백가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는 양 캠퍼스 통합 46개의 경희후원의 집 중 11개 가게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노바이탈리아노, 다우전자(주), 샹그라, 광주회관, 갈비명가 이상, 청솔디자인, 반월, 파르테, 한국난원, 유성관, 영성반점 등 경희 구성원에게 익숙한 가게의 대표들이었다. 장학생 중에는 장혜지(한약학과 18학번) 학생과 서윤구(화학과 20학번) 학생이 참석했다.

행사는 밝고 따듯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캠퍼스 인근 생활권에서 서로 마주하며 지내온 시간이 반영된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한균태 총장은 "경희후원의 집 행사는 처음이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부를 이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총장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다. 오늘 오신 지역 상공인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평소의 이웃인 학생들을 위해 지원해주신 경희후원의 집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장학금 수혜자 선정 방식 총학생회와 함께 논의,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

총학생회 남우석 회장은 "캠퍼스만이 아니라 경희대 근처의 상권 모두 공생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했다. 백가림 부회장은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련해주신 돈이라 생각한다. 소중한 모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희대는 총학생회와 함께 이번 장학금의 수혜자 선정 방식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이라는 장학 목적에 맞게

코로나19 장학금 전달식에는 경희후원의 집 대표들과 장학금을 받은 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장학금 전달식 참석자들의 모습.

장학금 전달식에서 한균태 총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부를 이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평소의 이웃인 학생들을 위해 지원해주신 경희후원의 집의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양 캠퍼스 대외협력처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해준 경희후원의 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할 방법을 고민했다. 서울캠퍼스는 '힘내라 경희! 기부 댄스 챌린지'를 진행해 마련한 코로나 방역키트를 전달했고, 국제캠퍼스는 학생들이 손편지와 감사인사 영상을 제작해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진행했던 댄스 챌린지 시상식.

'힘내라 경희 후배들' 캠페인을 독려한 동문들도 모교를 찾았다. 대외협력처가 처음 시도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이었는데, 이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사진은 환담에 참여한 한균태 총장과 동문들의 모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자 했다. 미래혁신원 박재홍 단장은 "학생처에서는 소중한 장학금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다. 여러 기준을 나누고 총학생회와 논의해 집행했다. 지금의 도움이 나중에 빛을 발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을 받은 장혜지 학생은 "기부의 의미에 맞게 학업에 전진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서윤구 학생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학생을 위해 나눠주신 장학금을 받아 감사한 마음이다. 열심히 수학해 이번에 느낀 따뜻함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처음 조성된 '경희후원의 집' 기금은 캠퍼스 근처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소액 기금 프로젝트이다. 후원의 집 결성부터 함께해온 유성관의 유창희 대표는 "30년 정도 장사하며 행복한 경험을 했다. 졸업 후 10년이 지난 손님이 가족들과 오기도 했고, 지방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학교를 방문해 우리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도 있었다"면서 "경희가 있어서 내 자신의 꿈들을 이룬 것 같다. 위기지만 힘을 내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힘내라 경희! 썸머 댄스 챌린지'에서 모은 코로나19 방역키트로 감사 마음 전해

노바이탈리아노 김상조 대표는 "비즈니스는 수익만큼 사회공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코로나로 수익이 70% 정도 감소했다가 지금은 40~50% 정도로 회복한 상태이다. 아들이 경희대에 입학하며 경희대를 사랑하게 됐다"면서 "경희대가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대학이다. 아들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총장님과 훌륭한 학생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 가게에서 자주 뵙게 되길 바라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난원의 박창규 대표는 정치외교학과 68학번으로 경희대 동문이다. 올해 초에는 김봉구(경제학과 67학번) · 정종태(정치외교학과 76학번) 동문과 함께 크라운관 객석기부 캠페인을 독려해 56명의 동문 기부자를 모으기도 했다. (관련기사: 대학을 응원하는 선배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 동문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 너무 작은 금액이라,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해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희후원의 집에는 경희 구성원의 마음을 담은 물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지난 하계 방학 기간 진행했던 '힘내라 경희! 썸머 댄스 챌린지'를 통해 모금한 금액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방역키트가 그것.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개교 72주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했던 이 챌린지는 디와이피엔에프㈜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국제캠퍼스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활동명 NTOL)이 작사 · 작곡한 노래에 서울캠퍼스 댄스동아리 발광이 춤과 가이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춤을 따라 추고 SNS에 올리는 캠페인이었다. 총 100여 명의 학생과 26개의 학과가 참여했고, 영상마다 현금 2만 원과 코로나 방역키트가 기부됐다.(관련 영상: 힘내라 경희! 썸머 댄스 챌린지 영상)

국제캠퍼스 장학생들은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감사 인사 영상 등을 제작했다. (국제)대외협력처는 이런 학생들의 성의를 모아 기부자들에게 소식지 형태로 만들어 감사장과 함께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부담을 덜고 조금 더 취업에 시간을 들일 수 있어, 안도했다", "코로나19 장학금으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얻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어려운 학생을 위한 소중한 정성이 모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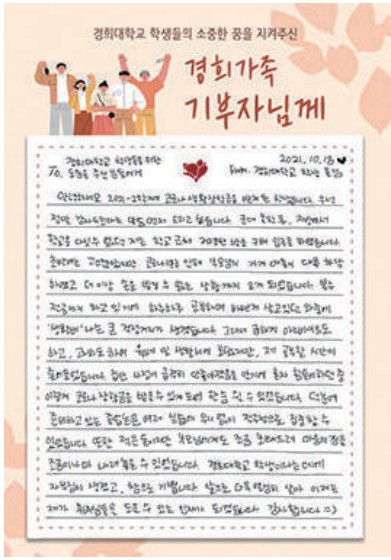
'힘내라 경희 후배들' 캠페인 독려한 동문들, 대학 찾아 환담

코로나19 장학금 전달식 이후에는 '힘내라 경희 후배들' 캠페인을 독려했던 하태수 · 육근병 · 오재욱 · 정경 동문이 본관을 찾았다. 한균태 총장과 윤여준 처장이 이들과 만났다. 이 캠페인은 대외협력처가 시도한 첫 온라인 모금 캠페인이었다. 윤 처장은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시도한 캠페인이었지만, 온라인 모금이라는 낯섦 때문에 동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캠페인의 시작에 네 동문이 영상으로 이를 알려주셔서 큰 힘이 됐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균태 총장은 "코로나19는 모두에게 위기였지만,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건설이라는 경희의 목표에 맞춘 발전을 늦출 수는 없었다.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동문은 대학의 발전을 응원하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든든한 아군이다"면서 "네 분이 영상으로 홍보해주신 덕분에 캠페인도 잘 알릴 수 있었고, 후배인 학생들도 응원의 마음을 잘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육근병 동문은 "미술계만을 봐도 경희의 위상이 많이 상승했다. 처음 미술계에 발을 들일 때는 동문을 보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활발히 활동하는 후배를 찾기 어렵지 않더라. 교수님들과 대학 전체가 큰 노력을 기울인 점이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모교에 힘을 보태는 일도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균태 총장은 동문과 만남 전에 진행했던 코로나19 장학금 전달식을 소개하며 경희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했다. 한 총장은 "경희대 인근의 상인분들도 넓은 의미로 경희 공동체의 일원이다. 경희후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찾는 학생들을 위한 마음을 모아줬다. 이런 활동이 학생들에게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며 "대학의 역할은 연구와 교육만이 아니다. 실천 활동도 중요하다. 경희후원의 집 기금과 힘내라 경희 후배들 캠페인, 댄스 챌린지 등 다양한 형태로 경희에 힘을 보태주는 분들 덕에 실천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제캠퍼스 장학생이 쓴 손편지 사진

기부는 나 자신과의 약속, 오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날

서정섭 동문(법과대학 58학번, 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이 2억 원을 기부했다. 서 동문은 동기인 정태류 동문(전 일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과 함께 50년 만에 서울캠퍼스를 찾아 기부를 약속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균태 총장과 서정섭 동문의 모습.

서정섭 동문(법과대학 58학번, 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 2억 원 기부

"법대의 교육이 사업가 삶의 큰 뿌리, 법철학이 도움됐어"

2021 08

"80세가 되기 전에 스스로 약속했다. 오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다" 약 50년 만에 서울캠퍼스를 방문한 서정섭 동문(법과대학 58학번, 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이 한 말이다. 발전기금 2억 원 기부를 약속한 서 동문이 정태류 동문(법학대학 58학번, 전 일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과 함께 모교를 찾았다. 한균태 총장과 윤여준 (서울)대외협력처장 등이 이들을 반겼다.

서 동문과 정 동문은 대학 시절과 달라진 본관의 모습을 보며 감회에 잠기기도 했다. 정 동문은 "저희가 입학했을 때에는 본관 양쪽 날개가 없었다. 우측 날개 자리에는 가설 화장실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난리가 나곤 했다(웃음)"라며 추억을 떠올렸다. 서 동문도 "같은 건물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다. 학교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모교에 도움 주려는 마음으로 이어온 기부 활동

서 동문의 기부는 처음이 아니다. 법과대학에 사법고시준비생 연구기금, 법학과 기금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 9백만 원을 기부해왔다. 이날 동행한 정 동문도 일반발전기금(서울), 평화의 전당 기금, 법학과 기금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6천 6백만 원을 기부했다. 모교에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왔다.

서 동문의 대학 생활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 동기와 비교해 3년이 더 걸린 졸업이었다. 서 동문은 "대학 생활의 낭만보다, 오로지 졸업만 생각 했다. 특별히 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만난 정태류 변호사가 가장 친한 친구이다"라고 말했다.

서 동문은 엠플(밀폐형 주사용 유리용기)과 바이알(주사용 유리용기) 제조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다. 60년대 후반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던 일본의 관련 업체를 무작정 찾아가서 기술을 배웠다. 그렇게 배운 기술력을 한국에서 발전시켜 지금은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정도이다.

법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지만, 대학에서 배운 내용은 서 동문의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됐다. 서 동문은 "대학에서 법철학을 배웠는데, 법철학은 삶의 길을 배운 것과 같았다. 사업을 하며 세상의 이치를 잘 따랐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사 운영도 돈을 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철학의 밑바탕에는 대학 시절 은사님들의 말씀들이 쌓인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한균태 총장은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희대는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구성원과 합심해서 슬기롭게 지나오고 있다. 이런 시기의 기부가 가뭄의 단비처럼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쇠약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선배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면서 "모교에 대한 동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약 50년 만에 서울캠퍼스를 찾은 서정섭 동문과 정태류 동문은 변화한 캠퍼스의 모습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정섭 동문과 정태류 동문의 모습.

부산 • 경남지역 동문 기부 릴레이 이어져

한균태 총장이 지난 7월 부산·경남 지역동문회를 찾았다. 세 번째 지역동문회 방문 일정이다. 기부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모교에 대한 지역동문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균태 총장 부산 · 경남 지역동문회 방문

고액기부자 '아너스클럽' 가입자에 감사와 격려 전달
다양한 기금모금 사업에 동참하는 동문 늘어

2021 07

작년 말부터 각 지역을 방문하여 동문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온 한균태 총장이 세 번째 지역동문회 방문 일정으로 부산 · 경남 지역을 찾았다. 부산동문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학의 다양한 기금모금 사업에 참여하는 동문이 늘고 있다.

진주동문회 김효수 동문회장(경제학과 67학번)을 비롯한 여러 동문이 뜻을 모아 미원기념사업 기금모금 사업에 동참했다. 부산동문회에서는 하용찬 동문회장(의학과 86학번)이 의과대학관 신축기금에, 백동진 동문(한의학과 83학번)은 미원기념사업 기금모금사업에 힘을 보탰다. 강은석(태권도학과 94학번), 최현희(체육학과 92학번), 김승준(경제통상학부 95학번) 동문 등은 객석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7월 한균태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부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세미나 방문을 겸해 진주, 창원, 부산의 지역동문회를 찾았다. 당시 방문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윤여준 (서울)대외협력처장, 정종혁 치과대학장 등 최소 인원이 동행했다. 모든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해 자리를 배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진행했다.

경남지역 동문 방문 일정은 진주동문회와의 간담회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한균태 총장은 "2021년은 경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설립자 故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탄신 100주년인 동시에,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 40주년, 경희학원 60주년,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등 경희 역사에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한균태 총장은 2021년의 의미를 설명하며 한편으로는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긴축재정을 유지해나갈 수밖에 없는 대학의 현실을 설명했다. 한균태 총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

교 발전을 위해 세일즈맨의 자세로 각지의 동문을 직접 찾아가 만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효수 회장(마일택시 대표이사, 경제학과 67학번), 원동희 사무국장(한의학과 82학번), 정파진 동문(정파진치과원장, 치의학과 77학번) 등은 한 총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정 동문은 "1966년 진주 지역에 경희대학교 동문 모임이 결성된 이래 모교 총장이 직접 진주를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라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교 발전에 밀알이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후 한 총장 일행은 창원으로 향해 고철수 동문(고운치과병원 이사장, 치의학과 79학번)을 만났다. 꾸준히 기부를 이어온 고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창원지역 동문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튿날 한 총장은 부산 · 경남지역 치과대학 동문들과 만났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게 된 치과대학 동문들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아너스클럽'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외협력처가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와 예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억 원 이상의 기부자가 가입 대상이다.

권규상(진영권치과의원 원장, 치의학과 81학번), 허정욱(굿월치과병원 대표원장, 치의학과 89학번), 김태형(우가주치과병원 대표원장, 치의학과 98학번) 동문이 누적 기부금 1억 원 이상으로 아너스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한 총장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행 · 재정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더해 대학과 동문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동문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예우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날 한 총장은 안광헌 동문(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대표, 기계공학과 81학번)을 만났다. 한 총장과 안 동문은 이공계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화상 특강 등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대학과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등을 논의하며 기업 관점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한 총장은 백동진한의원을 방문하여 백동진 동문(백동진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83학번)과 만났다. 백 동문은 그간 한의과대학의 다양한 기금 마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오고 있다. 한 총장은 전임 부산동문회 회장으로서 백 동문의 노고와 기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산시 서면으로 이동한 한 총장은 올해 부산동문회 회장으로 취임한 하용찬 동문(A+성형외과 원장, 의학과 86학번)의 병원을 방문했다. 하 동문은 "부산동문회는 부산지역의 다른 대학동문회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된다.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가진 동문들이 각자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하며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 동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모교의 발전된 위상과 변화한 캠퍼스 풍경 등 소식을 접하고 있다"라며 "모교에 힘이 되는 동문회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장의 마지막 일정은 부산동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였다. 백동진 동문, 하용찬 동문을 비롯하여 강은석(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부교수, 태권도학과 94학번), 최현희(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책임교수, 체육학과 92학번), 김승준(이강공사 이사, 경제통상학부 95학번) 동문이 참석했다. 모교에 대한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고 공감하던 간담회는 대학의 현 상황 및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변화 등의 주제로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총장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장에 보임하게 됐지만, 이것 또한 내게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한다. 모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발벗고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 동문은 "작년 말에 이어 또 보게 되니 한 총장 각오에 믿음이 간다. 먼 거리지만 자주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모교와 동문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 동문은 "모교 총장과 대면하여 모교의 상황은 물론 한국 대학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 알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 이런 자리를 통해 동문들이 모교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나눔을 통해 행복을 실천하는 '아레테 클럽'

대외협력처가 기부를 통해 선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원 모임인 '아레테 클럽'을 발족했다. 아레테 클럽은 경희대 소속 교원이 가입할 수 있고, 정년 퇴임까지 약정한 금액을 기부한다. 아레테 클럽 발족 이후 다수의 교원이 가입하며 기부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 대상 기부 제도 '아레테 클럽' 발족

화학공학과 이용택 교수가 처음으로 가입, 간호과학대학 교수 전원 아레테 클럽 참여

2021 06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선'을 중시하며 최선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이 '선'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는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이 바로 '아레테(Arete)'"라고 말했다. 아레테는 어떤 종류의 탁월함, 도덕적 미덕, 최상 · 최선의 상태를 뜻하는 그리스어다. 대외협력처가 기부를 통해 선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원의 모임인 '아레테 클럽'을 발족했다.

아레테 클럽은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한 교원 커뮤니티이다. 가입 대상자는 경희대 소속 교원으로 총 3천만 원 이상 기부하거나, 약정한 자이다. 기부 교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구성원의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커뮤니티이다. 아레테 클럽에 가입한 교원은 연구실 앞 명패 제공, 무료 주차권 등 대외협력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예우를 받으며, 가입자를 위한 특별 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부 교원 간 소통과 교류를 진행한다. 아름다운 나눔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아레테 클럽은 많은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다. 한균태 총장도 흔쾌히 기부하며 아레테 클럽에 동참했고, 지난 한 달 동안 다수의 교원들이 영예로운 아레테 클럽의 새로운 멤버가 됐다.

아레테 클럽 발족 후, 화학공학과 이용택 교수가 처음으로 가입했다. 대외협력처는 5월 말 이용택 교수의 아레테 클럽 가입을 기념해 약정식과 명패 부착 행사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공과대학관 건축기금으로 5천만 원을 약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공과대학 50주년 당시 기부를 준비했지만,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라며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2022년 재직 3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번 기부하지 못한 아쉬움과 30주년이라는 개인적인 의미를 더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후학이 혜택받아 더 의미 깊다”

이용택 교수는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재직기간 동안 교육과 연구, 실천이라는 교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고 오랜 기간 몸담은 대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라고 기부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대학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정년 퇴임할 시기에 후학이 생겨있다. 기부를 통해 후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내부 구성원의 기부가 더 의미 있다”며 아레테 클럽 발족을 반겼다.

오종민 (국제)대외협력처장은 “아레테 클럽은 경희 발전을 위한 마음을 담아 기부를 실천한 교수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라며 아레테 클럽의 창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부 프로그램에는 중간 예우가 정해져 있거나 기부가 종료된 후에 예우를 표하곤 했다. 하지만 아레테 클럽은 기부를 결정한 기부자가 퇴직 때까지 기부를 약정하면 예우를 먼저 제공한다”라며 기존의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아레테 클럽의 의미가 잘 전달돼 경희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용택 교수께서 첫 테이프를 잘 끊어주셔서 더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라며 “많은 분이 기부에 동참해 경희의 문화를 바꾸고, 경희의 가능성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 인식이 공유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간호과학대학 교수 19인 전원 가입, ‘기부 정신’은 경희 발전의 원동력

이용택 교수를 시작으로 간호과학대학 교수 19인 전원도 아레테 클럽 가입 소식을 알렸다. 신임교원인 라인서 교수가 아레테 클럽에 가입하면서 간호과학대학 교수진 전원이 아레테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6월 10일 개최된 약정식에는 한균태 총장과 윤여준 (서울)대외협력처장 등과 간호과학대학 석소현 학장, 윤은경 부학장, 강영미 학과장, 정연희, 신현숙, 라인서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균태 총장은 “개인의 기부도 어려운 일이지만, 단과대학 교수진 전체의 약정은 이례적인 일이다. 선배들의 행동을 보고 후배가 따라가는 모습인데, 좋은 선배들이 돼 주어 감사하다”라며 “기부 정신이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전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레테 클럽의 창립과 함께 저도 기부를 약정했는데, 경희의 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여준 처장은 “간호과학대학의 기존 기부자와 신규 기부자 모두께 미리 감사를 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늦어진 것 같아 죄송하다. 기부문화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영역이다”라며 “모교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가 오히려 구성원은 어렵다. 전원이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기부가 전통인 간호과학대학의 모습이 교수님들의 애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석소현 학장은 “2005년 신임 교수로 경희 가족이 되며 기부를 시작했다. 기쁜 마음으로 기부해왔는데, 아레테 클럽을 만들어 작은 마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약정식에 오면서 간호과학대학 교수진의 경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매달 조금씩 나누면 그 마음이 쌓인다고 생각했다”라고 기부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런 기부문화가 우리 대학의 전통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이 기부금이 경희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발전과 혁신에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은경 부학장은 “기부는 이미 퇴임하신 선배님과 함께 시작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생각이다. 더 나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간호과학대의 발전에도 모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응원합니다

누베베한의원이 한의과대학 장학금 및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 총 1억 원을 기부했다. 2018년과 2019년의 기부에 이은 세 번째 기부이다.

누베베한의원, 한의과대학 장학금 및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 총 1억 원 기부

2021 05

세 번째 기부, "한의과대학의 실용적 교육이 성공의 밑거름"

누베베한의원이 한의과대학 장학금과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으로 총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와 2018년도 기부에 이은 세 번째 기부이다.(관련기사: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성공을 기원합니다")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는 한의과대학이 2018년 신축 건물 개관식에서 선포한 프로젝트로 '한의학으로 인간 중심의 글로벌 의학을 창조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포부를 담았다. 발전기금 기부식은 지난 5월 21일(금)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개최했다. 기부식에는 경희대 한균태 총장과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 대외협력처 윤여준 처장을 비롯한 경희대 구성원과 누베베한의원 임영우 대표원장과 김서영 원장, 박영배 미병연구소장, 최가혜 원장과 ㈜누베베 오수미 대표, 이지연 본부장이 참석했다.

누베베한의원 임영우 대표원장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희대 대학원에서 실용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교육과정 개편과 연구 수월성 확보 위해 노력할 것”

한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모두에게 같다. 기부 결정이 어려웠을 것을 안다. 기부에 대한 의지나 대학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라며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총장으로서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학장도 “지난해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의 문을 열어줬던 누베베한의원이 다시 기부해주어 감사한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기부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교육과정 개편과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처장은 “지속적인 기부에 감사하다. 경희대 중 노벨상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단과대학은 한의대 말고는 없을 것이다. 누베베한의원의 응원이 한의과대학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임 대표원장은 “작은 성의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다. 한의학이 현대화되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인지 시장에서 뒤처진 경향도 보인다. 이런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산업화에 집중해 왔다”라며 “경희대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실용적 정신을 배웠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한다. 사업적으로 성공한 누베베한의원과 같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또 다른 누베베가 나타나 경희대에도 도움이 되는 환류의 흐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전통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의학으로 발전해왔지만, 현대화에 뒤처져 산업적으로 쇠퇴하고 저평가받는 부분이 있다. 대학원에서 객관화, 정형화, 과학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교육받았다. 이런 부분이 한의학의 대중화라는 성취의 기반이라 생각한다”라며 “모교가 발전하며 한의학도 함께 발전했으면 한다. 대학과 함께 발전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작은 인연을 계기로 시작한 기부, 계속 이어가겠다

지난 5월 3일(월) 경희대학교-KD 운송그룹 기부 약정식이 진행됐다. KD 운송그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 장학금 1천만 원, 경희대 국제캠퍼스 환경개선 기금 1억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균태 경희대 총장, 허상준 KD 운송그룹 사장

경희목련 희망 장학기금 1천만 원 및 국제캠퍼스 환경개선기금 1억 2천만 원 기부 약정

2021 05

경희대-KD 운송그룹 기부 약정식 개최

"작은 인연을 계기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뜻깊은 인연이 됐다. 그 인연이 불씨가 되어 기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경희목련 장학기금과 환경개선기금 1억 3천만 원을 기부한 허상준 동문(법학과 82학번, KD 운송그룹 사장)의 말이다. 허 동문이 말한 경희대와 KD 운송그룹의 인연은 2004년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4년 KD 운송그룹이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버스 차고

지를 두며 인연은 시작됐다. 그 이후 KD 운송그룹과 허 동문은 경희대에 꾸준히 기부하며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경희대는 KD 운송그룹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월)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기부 약정식을 진행했다. 기부 약정식에는 경희대 한균태 총장, 오종민 국제 대외협력처장, 변호현 총무관리처장, KD 운송그룹 허상준 사장, KD 운송그룹 허덕행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KD 운송그룹은 1971년 창업한 이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버스운송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버스 차고지를 둔 이후 국제캠퍼스 내 구성원의 버스 무료 이용 혜택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기부하는 등 약 13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 장학금 1천만 원과 국제캠퍼스 환경개선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추가 약정했다.

기부 약정식에서 한균태 총장은 "KD 운송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송그룹이다. 허 동문이 18년 동안 모교 사랑을 실천해 감사드린다"라며 이어 "기업체가 기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이라는 힘든 노력이 받쳐 줘야 한다. 힘써 얻은 결과물을 대학에 기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허 동문은 "경희대와는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 2004년 경희대와 연을 맺은 이후 시간이 가며 인연이 무르익고 있다. 작은 인연이 발판이 돼 기부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10여 년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모교에 계속 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의과대학 김호철 교수-(주)뉴메드, 발전기금 10억 원 기부

한의과대학 김호철 교수와 천연물 연구개발 기업 ㈜뉴메드가 한의과대학에 발전기금 10억 원을 기부한다. 사진은 발전기금 기부식에 참석한 한균태 총장, ㈜뉴메드 강희원 대표, 한의과대학 김호철 교수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2027년까지 총 10억 원 기부 약정…김호철 교수 2억 원, ㈜뉴메드 8억 원

한의과대학 본초표본박물관, 동의보감소재은행 운영과 기초 한의학 발전기금으로 활용

2021 02

한의과대학 김호철 교수와 천연물 연구개발 기업 ㈜뉴메드(대표 강희원)가 한의과대학에 발전기금 10억 원을 기부한다. 발전기금 기부식은 지난 2월 3일(수) 본관 213호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식에는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했다.

“한약재 자원 전시 공간 본초표본박물관, 관련 연구 허브로 키울 예정”

이번 약정으로 김호철 교수와 ㈜뉴메드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0억 원을 기부한다. 올해는 총 2억 5천만 원(김호철 교수 5천만 원, ㈜뉴메드 2억 원)을 기부했다. 향후 6년간 매년 김호철 교수가 2천 5백만 원을, ㈜뉴메드가 1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뉴메드는 2003년 김호철 교수를 주축으로 경희대 창업보육센터 내의 벤처기업으로 출범한 기업이다. 창업과 공동연구,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단계를 착실히 밟은 기업이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청년 TLO 육성사업의 지원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어 경희대 산학협력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김호철 교수와 ㈜뉴메드의 기부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한다. 먼저 김호철 교수의 기부금은 한의과대학 학부생 장학금을 비롯한 ‘기초한의학 발전기금’으로 쓰이고 ㈜뉴메드의 기부금은 한의학 연구 인프라 구축에 활용한다. 한의과대학 1층에 ‘본초표본박물관’을 조성하고 ‘동의보감소재은행’과 ‘한약DNA은행’ 등을 구축한다.

본초표본박물관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한약재 자원과 석엽표본(식물표본)을 수집해 전시하는 공간이다. 학술적으로도 한약 감정과 천연물 표준화 및 산업화에 기여하며 한의과대학 학생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동의보감소재은행은 201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전통 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사업’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현재 국내 천연물 관련 기업과 국공립연구기관에 표준 한약재와 추출물을 분양하고 있다. 이번 기부로 과제 종료 후에도 동의보감소재은행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약DNA은행은 한약 기원종과 비교종의 DNA를 보관해 한약 유전자 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이용한다.

김호철 교수는 “2003년 경희대 창업보육센터 7평 공간에서 시작해 졸업 기업으로 대학에 기여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기초학에 뜻을 둬 왔는데, 이번 기부가 기초한의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초표본박물관이 관련 연구의 거점 센터로 자리매김하게 육성하려 한다. 기부를 결심하기까지 대학의 큰 비전을 보여준 한균태 총장님과 이재동 학장님께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기부의 소감을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사례 ㈜뉴메드, “경희대에 보답하는 의미로 기부 결정”

강희원 ㈜뉴메드 대표는 “모체 격인 경희대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돼 매우 기쁘다. ㈜뉴메드의 발전에 도움을 준 경희대에 보답하는 의미로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기부금이 한의과대학의 본초표본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사용되길 바란다”라며 기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뉴메드는 경희대 이공계 대학 평가 자연과학계열의 산학협동 및 기술실용화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경희대와 천연물 소재 연구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은 “한의학관 신축 이후 1층의 본초표본박물관 자리가 항상 신경 쓰였다. 김호철 교수와 설립과 운영에 관해 이야기해왔는데, 기부까지 해주어 감사하다”라며 “본초표본박물관이 단순히 박물관이 아니라 본초 연구의 중심 거점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연구만이 아니라 산학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균태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흔쾌히 거액을 쾌척한 김호철 교수와 ㈜뉴메드에 깊은 감사를 나타냈다. 한 총장은 “㈜뉴메드는 한의과대학과 산학협력으로 일찍 뛰어난 성과를 낸 기업이다”라며 “경희대가 위치한 홍릉은 서울시가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지역이다. 우리 대학도 바이오, 헬스, 고령친화제품, 천연물 건강식품, AI를 활용한 건강 플랫폼 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해 관련 분야를 발전시키겠다. ㈜뉴메드와도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부는 동문이 모교에 보답하는 방법

지난 12월 28일(월) 김완길 동문 장학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균태 경희대 총장, 김완길 동문

김완길 동문(화학공학과 85학번, ㈜미래씨엠티 대표이사) 장학기금으로 1억 원 기부

2019년 공과대학 50주년 기념사업 기부에 이어 모교 사랑 실천

2020 12

후배 사랑과 모교 발전을 실천하는 경희 동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김완길 동문(화학공학과 85학번, ㈜미래씨엠티 대표이사)으로 화학공학과 학부생과 대학원 신입생을 위해 장학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김완길 동문은 2019년 공과대학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금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사회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던 원동력은 모교, 기부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장학금 전달식은 지난 12월 28일(월)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한균태 총장, 오종민 대외협력처장, 김완길 동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전달식에서 한균태 총장은 “기부 결정에 감사하다. 김완길 대표의 기부 정신이 기부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져 동문을 만날 기회가 적어 아쉽다. 기부는 대학과 동문 관계가 긴밀히 구축될 때 이루어진다. 동문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세우기 위해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길 동문은 “청운의 꿈을 품고 졸업한 지 3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던 기본 원동력은 모교였다. 기부는 동문이 모교에 보답하는 방법이며 동문의 책임과 의무이다. 이번 기부가 공대 기부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수님들과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완길 동문은 화학공학과를 졸업해 코오롱상사, 이래화학을 거쳐 ㈜미래씨엠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화학공학과 동문회 회장을 역임 중이며 2021년부터 공과대학 총동문회 회장을 맡아 지속해서 모교 사랑과 후배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경희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정년퇴직 교원 중 교육과 연구 성과가 뛰어나고 대학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교원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교원은 장진 고황명예교수와 변정우 명예교수다. 사진 왼쪽부터 변정우 명예교수, 한균태 경희대학교 총장, 장진 고황명예교수.

퇴직교원 고액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개최

장진 고황명예교수, 변정우 명예교수 재직하는 동안 꾸준히 기부

2020 09

지난 9월 25일(금) 서울캠퍼스 본관 213호에서 퇴직교원 감사패 전달식이 개최됐다. 감사패는 정년퇴직 교원 중 교육과 연구 성과가 뛰어나고 대학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교원에게 전달됐고,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장진 고황명예교수와 변정우 명예교수가 그 대상이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희대학교 한균태 총장과 손혁상 대외협력부총장, 윤여준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적 권위자 장진 고황명예교수, 다양한 기부로 학과 발전 도와

장진 교수는 지난1982년 문리과대학(현 이과대학) 부임 이후 지난 2020년 2월 퇴임까지 약 38년간 경희대에 재직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 최초로 플렉시블(Flexible) 및 투명 아몰레드(AMOLED ·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개발 등 다양한 박막트랜지스터(TFT) 제작 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 분야를 선도해 왔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에는 호암상 공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퇴임 후 올해 9월에는 고황명예교수로 임명됐다. 고황명예교수는 퇴직 교원 중 교육, 연구, 실천의 업적이 탁월한 교원에게 주어지는 명예교수직이다. 고황명예교수는 퇴임 이후에도 강의를 계속할 수 있어 장진 교수는 2020학년도 2학기에도 강의를 하고 있다.

장진 교수는 재직 기간 동안 다양한 기부활동을 이어왔다. 대학원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과 학과 기금, 우수외국인학생유치기금, 이과대학 Global Trust 기금 등 기부의 종류도 다양했다. 지금까지 기부 금액은 약 4억 원이다.

장진 교수는 "퇴임하며 살펴보니 석박사를 200명 넘게 배출했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도 100명이 넘게 취직했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란 것을 퇴직 이후에 더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는 큰 의미를 두고 한 것이 아니었다.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씩 해온 것이 쌓여 크게 보이는 듯싶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단과대학의 발전을 도운 변정우 명예교수

변정우 교수는 1996년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현 호텔관광대학)의 교수로 임용돼 올해 2월 정년퇴임까지 약 24년간 재직했고, 지난 9월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명예교수는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교원 중 대학 발전과 교육, 학술 분야의 업적이 탁월한 교원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이다. 호텔관광정보 연구자로 호텔관광대학의 호텔관광정보연구소장과 (사)서비스사이언스 전국포럼 상임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관광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했다.

변정우 교수는 재직하던 호텔관광대학만이 아니라 여러 단과대학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의과대학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학부 등에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학기금도 기부했다. 변정우 교수는 "기부가 '솔선수범'이자 자녀에게 가장 모범적인 교육"이라고 말한다.

장진, 변정우 두 교수는 경희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도 해주었다. 장진 교수는 "고황명예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하다 보니 행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연구를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한균태 총장은 "대학이 교수들이 따온 연구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선제적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라며 산학협력 거버넌스 개선 계획을 소개했다.

변정우 교수는 "기부할 때 특별한 돈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 쓴 책의 인세가 나올 때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하게 됐다"라며 "기부를 위한 분위기가 아쉽다. 누군가 솔선수범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진 것 같다. 기부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균태 총장은 "대학 발전에 도움을 준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대학에 기여하고 공헌한 사람을 인정하고 인사드리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겠다"라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학교에 귀중한 도움을 주셨으니 대학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경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호 동문,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이재호 동문(혜전대학교 명예총장, 행정학 박사)이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재호 동문은 "그간 대학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라며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재호 동문(혜전대학교 명예총장, 행정학 박사)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경희와 맺은 인연 떠올리며 기부 결정해, 어려운 시기 대학 발전에 도움 됐으면"

2020 07

이재호 동문(혜전대학교 명예총장, 행정학 박사)이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에 경희대학교는 지난 7월 15일(수) 본관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한균태 총장과 손혁상 대외부총장, 윤여준 서울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이재호 동문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은 후, 지난 1999년 경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2003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혜전대학교의 총장으로 봉직했고 현재는 명예총장으로 있다. 윤여준 처장은 "부끄러움 없는 교육 실천가로 살아온 삶의 양식이 많은 후배에게 가르침이 될 것"이라며 이재호 동문을 설명했다.

선친의 영향으로 혜전대 총장직 수행

교육자로서의 이재호 동문의 활동은 선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재호 동문의 선친인 청운(靑雲) 이종성 선생은 40대 후반 공직에서 물러나 1970년 충남방적을 창업했다. 국내 최대의 방적 회사였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 뛰어들어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직원을 위해 공장이 있는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했다. 1981년에는 혜전대학교의 전신인 혜전전문대학을 설립했다.

학업을 마치고 기업에서 일하던 이재호 동문은 1998년 선친의 별세 이후 혜전대학교 총장이 됐다. 그의 나이 45세의 일이다. 이후 혜전대학교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전문대로는 최초로 조리과와 제빵과를 설립했고 해외 조리학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리 및 제빵분야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했다. 또 간호학과와 호텔조리계열 등의 발전에도 힘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재호 동문의 기부는 2007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구체화됐다. 아내가 관리했던 적금과 보험 등을 정리하다가 나온 돈을 의료기관에 기부했다. 의료기관의 연구에 사용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환자를 돕길 바랐다.

"동문의 응원에 감사하며, 세계적 명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

이재호 동문은 "1999년에 경희대 박사과정에 입학해 2003년까지 인연을 맺었다"라며 "대학원을 마친 대학이기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경희대가 지구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균태 총장은 "기부는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코로나 19라는 전 지구적 상황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지금, 이재호 동문의 응원을 받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재호 동문을 뵙는 자리에서 경희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설명해 드린 바 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교육기관이자 세계적 명문으로 거듭나고 지구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부터 경희인을 지켜주세요

이경민 동문의 현물기부 기증식이 있던 날, 클린씨유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균동 필름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을 상실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며 기쁨을 더했다. 이경민 동문은 "앞으로 경희대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전영덕 체육대학 총동문회장, 이해봉 ㈜프라임솔루션 고문, 이경민 클린씨유 대표, 백운식 학무부총장(국제), 송종국 체육대학장, 오종민 대외협력처장, 뒷줄 왼쪽부터 김기현 GKnetworks 대표, 김효수 체육학계열 종합행정실장, 이상훈 ㈜프라임솔루션 대표, 오경록 체육대학 부학장, 신의석 체육부(아이스하키) 감독.

학생 · 동문 기업인들의 손 소독제, 항균동 LDPE 필름 등 아름다운 기부 이어져

2020 06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의 안정적 발전과 경희의 미래 위해 나눔 실천

코로나19 대응에 학생·동문 기업인들이 힘을 보탰다. 이경민(체육학과 97학번, 클린씨유 대표) 동문이 2천 4백만 원 상당의 항균동 LDPE 필름 등을, 양수진(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공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3기, 구스타㈜ 대표) 학생이 3천 6백만 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기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경민 동문, 양수진 학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하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2차 유행 중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감소 예측이 빗나가면서 대학에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학생 · 동문 기업인들이 힘을 보탰다. 지난 6월 18일, 23일 이경민 동문과 양수진 학생의 현물기부 기증식이 열렸다. 이경민(체육학과 97학번, 클린씨유 대표) 동문은 2천 4백만 원 상당의 항균동 LDPE 필름 등을, 양수진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공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3기, 구스타㈜ 대표) 학생은 3천 6백만 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기부했다. 경희 구성원의 위생과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함께 전했다.

이경민 동문, 코로나19 감염력 상실 입증된 항균동 LDPE 필름 등 5종 기부
양수진 학생, 손 소독제 2,000개 전달… "경희 빛내며 뷰티산업에 이바지할 것"

이경민 동문은 클린씨유에서 개발한 항균동 LDPE 필름 등 5종을 기부했다. 클린씨유는 항균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로, 그간 적용해오던 항균동 분말 외에 항균성 구리를 적용한 항균동 플라스틱에 대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는 등 우수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경민 동문의 현물기부 기증식 당일, 클린씨유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균동 필름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을 상실시키는 불활화(不活化)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쁨을 더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 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클린씨유의 항균동 필름은 파라 필름 대비 77.8%(8시간 경과), 최대 96.7%(24시간 경과) 더 불활화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양수진 학생은 손 소독제 2,000개를 기증했다. 현재 1,080개를 건물 주출입구, 행정 공간, 단과대학 강의실, 실험 · 실습실 등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2학기에 활용할 예정이다. 양수진 학생이 대표로 있는 구스타㈜는 2014년 설립된 친환경 여성 청결제 제조업체로, 기업부설 피부과학연구소의 특허 기술로 항균 세정하면서 피부도 보호하는 다목적 손 소독제를 출시했다.

백운식 학무부총장(국제)은 각 기증식에서 "후배들을 위해 항균동 제품을 기부하고자 모교를 찾아주신 이경민 동문을 환영한다"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양수진 대표가 경희대 생명공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며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기업인이 있기에 우리나라 R&D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다. 인연이 이어져 대학과 기업, 사회가 지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혁상 대외부총장은 "적절한 시기에 귀한 물품을 기증해주셨다. 나눔을 실천해주셨다는 것에 대해 대학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구성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기업 경영에 힘이 됐으면 한다"라며 "더불어 모색하는 사업이 번창하길 빈다"고 언급했다.

이경민 동문은 "경희인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하며 어느 곳에 가든 경희 동문임을 밝혀왔다"라며 "경희의 미래를 응원하는 작은 마음을 전달한 것 같아 좋다. 경희대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겠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양수진 학생은 "손 소독제를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 경희인으로서 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며 "경희를 빛낼 수 있는 학생으로서 더욱 열심히 사업을 하며 우리나라 뷰티산업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수진 학생은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할 때 더욱 좋고, 효과 높은 손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했고, 특허도 받았다.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오는 가을,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여성 청결제를 한국과 일본 동시 론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안정적 발전과 경희의 미래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오승주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장, 오종민 대외협력처장, 백운식 학무부총장(국제), 양수진 구스타㈜ 대표, 손혁상 대외부총장, 황은선 생명공학원 박사, 신봉규 일반대학원 행정차장.

2021.09

약대 동문,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 모아

매년 졸업 40주년 · 30주년 동문이 모교에 발전기금 전달하는 전통 만들어

77학번 · 87학번 동문 각각 2천3백만 원 · 1천7백50만 원 기부

경희를

2021.05

환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후배가 없길 바란다

최지윤 동문(미술교육과 80학번) 미술대학 발전기금 기부

"모교와 선배들에게 받은 용기를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다"

2021.07

한국커피 산업의 발전, 경희대와 함께한다

한국커피로스터연합, 호텔관광대학에 1억 원 기부 약정

업무협약으로 관광대학원에 커피 로스팅 관련 과정 개설 계획

2021.04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동문이 모교 발전의 밑거름

한균태 총장 4월 중순 제주총동문회 방문

동문과의 상생 사업 모색 '제주 경희 후원의집 로드맵' 구축

모교 발전 위한 기부 참여 릴레이 이어 나가

밝히는

2021.04

학생에게 받은 상, 학생에게 다시 돌려주다

'2020 경희 Fellow(교육)' 선정 의예과 박승준 교수, 상금 천만 원 기부

"교수는 미래를 어루만지는 직업, 책임감으로 더 노력할 것"

2021.03

10년 전의 고마움에 보답합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 기부금 약정식 개최, 5100만원 기부 약정

"정규직 전환과 학생 연대에 대한 감사한 마음 표현할 기회"

2021.03

치과대학에서 얻은 인연의 값어치는 기부보다 더 크다

치과대학 임해수 동문(치과대학 98학번) '치과대학 Global Trust 기금' 기부

2천만 원 기부, "앞으로 자녀들도 치과대학에 입학해 다시 기부하고 싶어"

2021.03

공과대학 구성원 마음 모아 제2의 비상을 꿈꾼다

2020 경희 Fellow(교육)로 선정된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장윤석 교수 상금 천만 원 기부, 화학공학과 김완길 동문 지금까지 1억 5천만원 기부

"학교에서 익힌 지식이 사회생활의 밑거름, 기부 문화 활성화의 마중물로 자리하길"

2021.03

대학을 응원하는 선배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문 주도, 크라운관 객석기부 캠페인 참여

총 56명 동참, 분당 중심으로 목표 정해 다른 지역 동문 참여 독려

2020.11

외국어대학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김우화 ㈜씨피에프 대표이사, 외국어대학에 장학기금 5천만 원 기부

'외국어대학 40주년' 기념 기부 물결 이어져

2020.12

생활과학대학 교수진, 인프라 조성에 힘보탠다

생활과학대학 역대 학장 2천만 원 기부

총 11명의 전임 학장 중 10명 참여

생활과학대학 시설 개보수에 활용

아름다운

2021.02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해 체육 재능기부 나선 학생들

2020학년도 2학기 세계시민교육 수강생,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로-연결 프로젝트' 수행

세계시민교육 통해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동체 위한 실천으로 확장

"세계시민은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 시민을 위한 활동 고민하게 됐다"

얼굴들

2020.11

기부는 대학의 근간을 유지하는 뿌리와 같다

한균태 총장 동문 방문, 첫걸음으로 김해, 창원, 부산 지역 찾아기부 앞장선 동문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 전하고 대학 발전 상황 설명과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 역할 강조

2020.11

이한구 원장, '평화학술기금'으로 3천만 원 기부

제29회 수당상 상금 중 일부 기부
"창학정신과 거교적 평화 학술 활동 돕고 싶어"

2020.12

모교는 동문에게 가족, 애정 가질 수 있게 발전할 것

치과대학 28회 동기회 기부금 및 치과대학 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발전기금 기부에 28회 동기회 90명 중 81명 참여 동문회 장학금 7명 학생에게 2백만 원 전달

2020.8

기부는 일상의 일부, 환자 마음에 공감하는 의사되길

이주석 가인치과의원 원장, 치과대학에 장학기금 기부학기별로 3백만 원씩 3년 기부 예정

기부자

2020.10

제자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하길 바란다

양덕춘 생명공학원 고황명예교수 장학기금 3천만 원 기부

18년 재직기간 동안 꾸준한 기부 활동 펼쳐

2020.09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한 모교에 감동

2020년도 약학대학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졸업 40주년, 30주년 동문 모교 방문해 발전기금 전달

2020.09

40주년 맞이한 외국어대학,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중국어학과 88학번 동문 후배 위해 장학금 1천만원 기부

외국어대학 개교 40주년 맞이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2020.09

'경희 사랑'으로 나눔 실천한 교수들

고재윤 호텔관광대학 교수 · 박준봉 치과대학 교수, 기부 꾸준히 이어져

"기부는 경희를 향한 고마움의 표시, 학교 발전의 씨앗이 되길"

2020.08

후배들이 글로벌한 꿈을 꾸길 바란다

허담 동문(한의과대학 80학번),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에 5천만 원 기부

"산학 협력 바탕으로 성과물 도출해 해외 진출 계획"

STORY

2020.03

코로나19 극복에 써주세요

봉사동아리 바인이 70년대 방문했던 강원도 산골 소녀 김은희 씨

2014년 5백만 원 기부 이후 매년 1백만 원씩 기부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에 1백만 원 기부해

2020.02

치과대학, 다양한 기부 잇따라

'유닛체어' 기부 사업 기획했던 박준봉 교수 23번째 기부, 치과대학 27회 졸업생 모임도 1천 5백만 원, 성남 티플러스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김은(98학번) 동문은 매년 1천만 원씩 기부

'치과대학 임상술기센터' 건립, 종합진료센터 시설 개선 등 치과대학 발전에 사용

2020.07

뉴질랜드 사슴협회(DINZ), 한의과대학에 장학금 기부

뉴질랜드 녹용 장학금 전달식 열려, 주한뉴질랜드 필립 터너 대사 참석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20.04.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 한의대 김성진 동문, 모교에 기부

한의과대학에 500만 원 기부

구성원 건강 유지와 학생 교육에 활용 예정

30년 넘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 위해 무료진료, 재능기부, 기부 · 기증 등 나눔 문화 실천

2020.01

이계탁 교수가 조성한 '향산 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2001학년도 퇴임한 이계탁 교수(前 행정대학원장) '향산 장학기금' 1억 원

꾸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에게 정 나눠주고파

개교72주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

학교 구성원 · 동문 대상, 나눔과 재미 연계시킨 다양한 행사 선보여

올해는 경희대 개교 72주년, 대외협력처 주관으로 개교 72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지난 5월부터 내년 초까지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래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확산,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시기인 점을 감안, 대외협력처는 72주년 기념행사를 구상하며 대학 구성원 및 동문이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기획,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같은 일련의 온라인 행사를 통해 학교 구성원 및 경희동문들이 개교 72주년의 의미를 공유하는 한편 심신의 피로를 경희사랑 정신으로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벤트

'우리,친구할래…?' + '경희사랑나눔 기부 캠페인(I♥KH)'

대외협력처는 5월 들어 두 가지 온라인 이벤트로 개교 72주년 기념마당을 열었다.

먼저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카카오톡플러스 채널을 신설해 소통 채널을 마련한 데 이어, 해당 이벤트를 소액 기부 캠페인과 연계시켜 기부하는 즐거움과 나눔을 경험하도록 했다. 이벤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품도 함께 제공, 참여자들에게 기부 후 누리는 작은 기쁨도 경험하게 하며 공감도를 높였다.

5월 한 달 간 진행된 카카오플러스 친구 맺기 이벤트는 2,500명 이상이 가입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으며 경희 구성원 및 동문이 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카카오플러스 친구 맺기는 현재도 오픈돼 있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며, 다양한 학교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친구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가입방법 : 카카오톡에서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조회 ▶ 친구추가

'경희사랑나눔 기부 캠페인'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소액 기부 행사로,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후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재학생 장학금, 취업준비생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인근 지역 소상공인에게 방역키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모교는 이 캠페인 후원자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며 참여 동기부여에도 힘쓰고 있다.

이벤트

'경희 후원의 집 이용하고 경희 굿즈 받자!'

6월부터 진행된 '경희 후원의 집 이용하고 경희 굿즈 받자!' 이벤트는 2003년부터 경희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주고 있는 경희대 인근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경희 후원의 집'으로 가입한 가게를 방문한 횟수에 따라 참여자에게 다양한 경희 굿즈를 증정했으며, 특히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대외협력처는 '경희 후원의 집' 홍보를 위해 후원의 집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단과대학 및 구성원들에게 배포하고, 카카오 맵을 통해 위치 및 가게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벤트

'힘내라 경희! SUMMER 댄스 챌린지'

네 번째로 여름에 진행된 '힘내라 경희! SUMMER 댄스 챌린지'는 학생들이 춤을 추면 2만 원이 기부되는 캠페인으로, 코로나19로 실종 상태인 캠퍼스 라이프를 다소라도 되살리며 이를 기부문화로 연계시키는 이벤트였다. 학생들의 춤 구현으로 생기는 해당 기부금은 경희동문기업이 실제 후원했으며, 모인 기부금은 경희 구성원이 자주 가는 단골가게에 코로나 방역키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

학생들은 이 이벤트에서 춤사위는 물론 행사 성공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서울캠퍼스 경희발광댄스 동아리가 댄스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국제캠퍼스 포스트모던학과 재학생이 관련 음악을 작사작곡했다. 행사 기간에 무용학부 학생들의 댄스를 시작으로 약학대학, 경영대학, 체육대학, 대학원 등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즐거운 댄스로 기부에 동참하고 SNS를 통한 자체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대외협력처는 경희동문기업 디와이피엔에프(주)의 후원 아래 11월에 학생들이 추천해준 대학 인근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희후원의 집'사장님들을 초청해 경희대와 오랜 기간 동행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 방역키트와 기념품 증정식을 가졌다.

카드뉴스 주소http://경희72주년-힘내라썸머댄스챌린지.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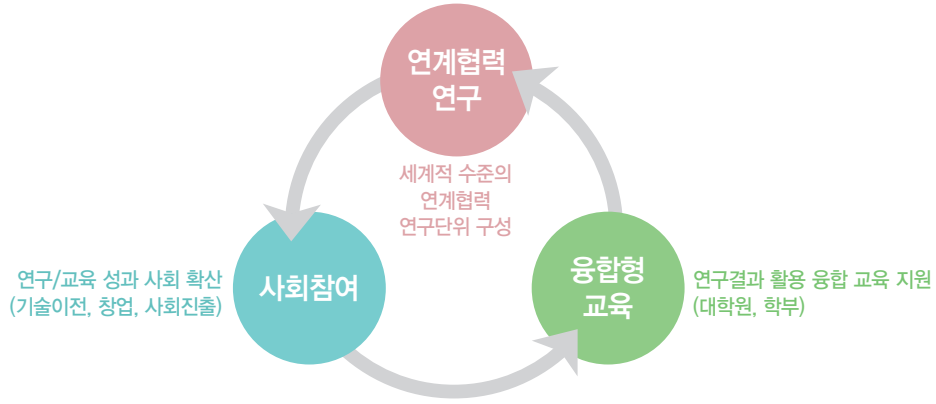
한편 경희대는 학생들에게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10월에 지급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곤란 학생들과 실험 · 실습 · 실기 과목 이수 학생들이며, 각 캠퍼스 기준 3억 원이 지원되었다. 특별장학금 재원은 대외협력처에서 2020년 진행한 '코로나19 극복 경희 후배사랑 캠페인' 모금액과 '경희 후원의 집'에서 오랫동안 후원해준 장학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11월 초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KH-미래과학관 건축 기금

'미래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온 경희가 미래과학관을 건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 단위를 창출하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KH-미래과학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단위 창출을 위해 교육 및 연구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연계협력 연구, 사회참여, 융합형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미래산업을 선도할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환경, 안전, 우주, 신소재, 메타버스 등 미래과학관에서 산출될 연구성과를 토대로 관련 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미래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연구, 교육, 사회 참여 선순환



미래과학관 사업 개요

주요시설(안)	지상4층	미래과학클러스터(클린룸), RIC
	지상3층	미래환경연구소, 미래과학클러스터, 반도체/전자그룹, RIC
	지상2층	미래환경연구소, 미래과학클러스터, LINC+입주업체, 휴게공간
	지상1층	로비, 천체투영관, 공동기기원, 글로벌과학관 지원시설, 메타버스 스튜디오, 입주업체
	지하1층	천체투영관, 공동기기원, 전기·기계실
기부예우	기부금액에 따른 공간(건물, 층별, 실별, 기자재별 네이밍)	

META-KHU 미래대학 기금

새로운 미래대학 교육 플랫폼
About META-KHU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확장된 경희대학교'라는 의미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경희대, 경희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대학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미래사회는 메타버스(가상현실)의 시대,

미래세대의 생활과 문화의 기반을 여러 차원의 가상현실을 뛰어넘으며 펼쳐지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메타버스 교육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여 경희대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올바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비상하려고 합니다.

META-KHU 캠퍼스 조성

물리적 한계와 현실의 제한이 없고 상상의 실현과 가능성이
무한한 캠퍼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교생 메타버스 하드웨어 (VR기기) 제공

메타버스 강의실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META-KHU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 운영

후원 기업 홍보관

- 2021년 AI 신성장 동력학과로 빅테이터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카트팜과학과 신설
- META-KHU 캠퍼스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실험, 팀 프로젝트, 토론, 협업 등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 META-KHU 캠퍼스에서 전 세계 유수 대학 및 석학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 META-KHU 캠퍼스에서 경희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으로 경희의 가치를 구현합니다
- META-KHU 캠퍼스에서 미래변화를 전망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 예우 프로그램

■ 공통 예우

구분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기부식	총장 주재	아너스클럽 위촉 및 VIP 예우 제공 (맞춤형 진료 서비스, 건강검진권 증정, 의료비 감면 등)
감사선물	메타버스용 VR기기 제공 Meta-KHU 웰컴 Kit 증정	
아바타	기부자 캐릭터 아바타 제공	
명절선물	연 2회(설, 추석)	
행사 초청	Meta-KHU 내 문화행사 시 초청 (콘서트, 전시회, 인문학 특강 등 가족 포함)	

■ META-KHU 활용 예우

구분	내용		5천만원 이상	1억원이상 (A)	1억원이상 (B)	2억원이상	5억원이상
광고/홍보 예우	메타버스용 VR(오큘러스 퀘스트) 기기상 기업명 (기부자명) 명시		○	○		○	○
	META-KHU 로딩 화면에 기업 광고 제공(10초 내외)			○ (1년)		○ (2년)	○ (2년)
	META-KHU 내 후원기업 전용 홍보관 기본 플랫폼 제공 및 홍보				○ (1년)	○ (1년)	○ (2년)
네이밍 예우	온라인	아너스월		○			
	온/오프라인	강의실명/회의실명 /세미나실명 (강의실 내에 기부자 흉상, 기부 스토리·메시지 전시)		○ (中 20년)	○ (中 20년)	○ (大 20년)	○ (大 30년)
		부대시설명 (실험실, 독서실, 컴퓨터실 등, 휴게실 등)	○ (15년)	○ (20년)	○ (20년)	○ (25년)	○ (30년)

※ 예우 내용 선택 가능, 기업 광고/홍보 메이킹 이후 교체 비용은 기업이 추가 부담

아레테 클럽

아레테(Arete) 클럽

나눔을 통해 행복을 실천하는 교원 클럽

아레테는 탁월함,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를 뜻하는 그리스어로서, 소크라테스는 선을 추구하는 좋은 삶을 아레테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선 미덕(Arete)을 쌓고, 실천하고, 생활속에서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희 아레테 클럽은 기부를 통한 나눔으로 행복을 실천해나가는 교수님들을 위한 교원 클럽이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레테(Arete) 클럽 가입 및 금액별 예우 안내

대상 경희대학교 소속 기부 교원(약정기준 3천만원 이상)

방법
- 기존 기부교원 : 자동가입
- 신규 가입교원 : 약정 후 급여공제로 발전기금 납부

아레테클럽 감사 예우

구 분		A형 (3,000만원)	B형 (5,000만원)	C형 (1억원)
공통 예우	명패	연구실 앞 [KH 아레테클럽] 명패 예우		
	기념일	생일 및 승진 등 축하 메세지와 기념품 제공		
	연말	총장서신, 연하장 및 달력		
	행사	아레테 클럽 교원 대상 특별 공연(음악회, 토크 콘서트 등 년 1~2회 예정) 대외협력처 주관 행사시 vip 초청		
신규 가입	가입선물	경희의료원 공진단 (5환) 경희 와인 Welcome Kit	경희의료원 공진단 (10환) 경희 와인 Welcome Kit	경희의료원 공진단 (20환) 경희 와인 Welcome Kit
추가 예우	약정식	대외협력처장 주재	대외부총장 주재	총장 주재
	건강 검진권		기본검진권 2매 혹은 150만원 상당 검진권 1매	150만원 상당 검진권 2매
	주차권		평생무료 주차권	평생무료 주차권
	명절선물			설, 추석 명절 선물

기부 달성 축하

정년퇴임시까지 기부하는 장기간 프로그램인 만큼 기부 달성률에 따라 감사의 마음 전달

50% 달성시

- 총장 감사 서신
- 50% 달성 축하선물

100% 달성시

- 명예로운 퇴직이 될 수 있도록 정년퇴임 시기에 맞춰 감사패 전달식 및 Focus 기사 게재
- 소속 대학 강의실 등 네이밍 예우
- 총장 감사 서신 및 퇴직 선물

기부금 세제 혜택 안내

근로소득 금액 100% 세액공제 인정 대상 금액임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1천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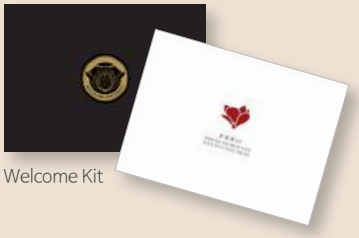
절세혜택 근로소득 범위내에서 15% 공제
예 시 연간 기부금 360만원 경우
360만원×15% = 54만원 환급

1천만원 초과

절세혜택 근로소득 범위내에서 30% 공제
예 시 연간 기부금 3천만원 경우
{(1천만원×15%) + {(3천만원-1천만원)×30%}}
= (150만원)+(600만원) = 750만원 환급

※ 대학에 기부한 발전기금 전액은 대외협력처에서 일괄 국세청에 등록함으로 연말정산시 별도 영수증 제출 필요없음
※ 발전기금 약정 중단시 납입 기간에 따라 환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아레테(Arete) 클럽 가입 선물


Welcome Kit

경희의료원 공진단

연구실 앞 명패

평생무료 주차권

70주년 기념 경희와인

아레테 클럽 가입명단

캠퍼스	대학	이름	직함
서울캠퍼스	경희대학교	한균태	총장
	문과대학	김중섭	교수
		유공조	명예교수
		유원준	교수
		정지호	교수
	정경대학	김학민	교수
	경영대학	권오병	교수
		윤여준	부교수
	호텔관광대학	이충기	교수
	생활과학대학	김연하	교수
		서소정	교수
		이현정	교수
		장경은	부교수
		정소진	부교수
		주서령	교수
		한명주	교수
	이과대학	구현주	교수
		권장혁	교수
		김윤희	교수
		김주훈	교수
		안정선	교수
		유건호	교수
		유정칠	교수
		이제승	부교수
		주성재	교수
	의과대학	김성수	교수
		김수중	교수
		김우식	교수
		김원	교수
		김진배	교수
		김희상	교수
		동석호	교수
		반건호	교수
		오승준	교수
		우정택	교수
		윤성상	교수
		윤태영	교수

캠퍼스	대학	이름	직함
서울캠퍼스	의과대학	전숙	교수
		조정제	교수
		허영범	교수
	치과대학	이효설	조교수
	한의과대학	김호철	교수
		남동우	부교수
		박성규	교수
		박정미	교수
		서병관	부교수
		심범상	교수
		이수경	교수
		임사비나	교수
		장규태	교수
		장문석	교수
	약학대학	김동현	교수
		류종훈	교수
		이경태	교수
		임동순	교수
	간호과학대학	강영미	교수
		김연정	교수
		김주희	부교수
		라인서	조교수
		박선희	교수
		석소현	교수
		신성희	교수
		신현숙	교수
		신혜숙	교수
		윤은경	교수
		이지아	교수
		임여진	부교수
		장미희	교수
		장애경	부교수
		정연희	교수
		최지선	부교수
		한정원	부교수
		황원주	부교수
		황지인	교수

캠퍼스	대학	이름	직함
서울캠퍼스	음악대학	강석희	교수
		김희라	조교수
		양고운	교수
		윤진원	교수
		이아경	교수
		이윤정	부교수
	미술대학	박미나	부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정완용	교수
		최광준	교수
	교육대학원	강인애	교수
	공공대학원	손혁상	교수
	무용학부	안병주	교수
		윤미라	교수
	국제교육원	이정희	교수
		조현용	교수
	인문융합연구센터	정효선	조교수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김선국	교수
		오종민	교수
		이용택	교수
		장윤석	교수
		정원석	교수
	전자정보대학	김진상	교수
		한승무	교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허의남	교수
		홍충선	교수
	응용과학대학	이동훈	교수
	생명과학대학	강동호	교수
		강세찬	교수
		김해영	교수
		손문기	교수
		손영숙	교수
		유정목	교수
		정기홍	교수
	외국어대학	김영주	교수
	체육대학	전익기	교수
		한광령	교수
	동서의학대학원	류재환	교수

KYUNG HE
UNIVERSITY

"대학문화, 아름답고 풍성하게"

크라운관 객석기부 캠페인

크라운관은 디지털 음향·영상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크라운관 객석에 남길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문화예술공간을 경희와 함께 채워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크라운관 객석에 보이는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
당신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600개의 이야기를 경희에게 들려주세요."

"크라운관 객석 기부금은 크라운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크라운관은 1974년 개관한 이후 경희 문화 공간으로서 구성원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경희와 문화를 밝혀주던 크라운관은 음향과 영상시스템, 좌석 등
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크라운관 재생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하려 합니다.
객석 의자를 교체하고 무대 인테리어를 개선, 공연 교육 환경 개선 및 대관 활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희의 문화 · 예술 발전에 음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기부 금액

- **VIP석**(200석) : **500,000원**
- **R 석**(200석) : **400,000원**
- **S 석**(200석) : **300,000원**

기부자 예우

- 크라운관 객석 네이밍
  내 용 : 이름 + 이야기(20자 내외)
  보존기간 : 10년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자 SNS 홍보
- 600개의 이야기가 채워지면 기부자 초청 콘서트 예정

한 균 태 (총장)

지구적 존엄을 향한
대학다운 미래대학 구현

구성원 예시

동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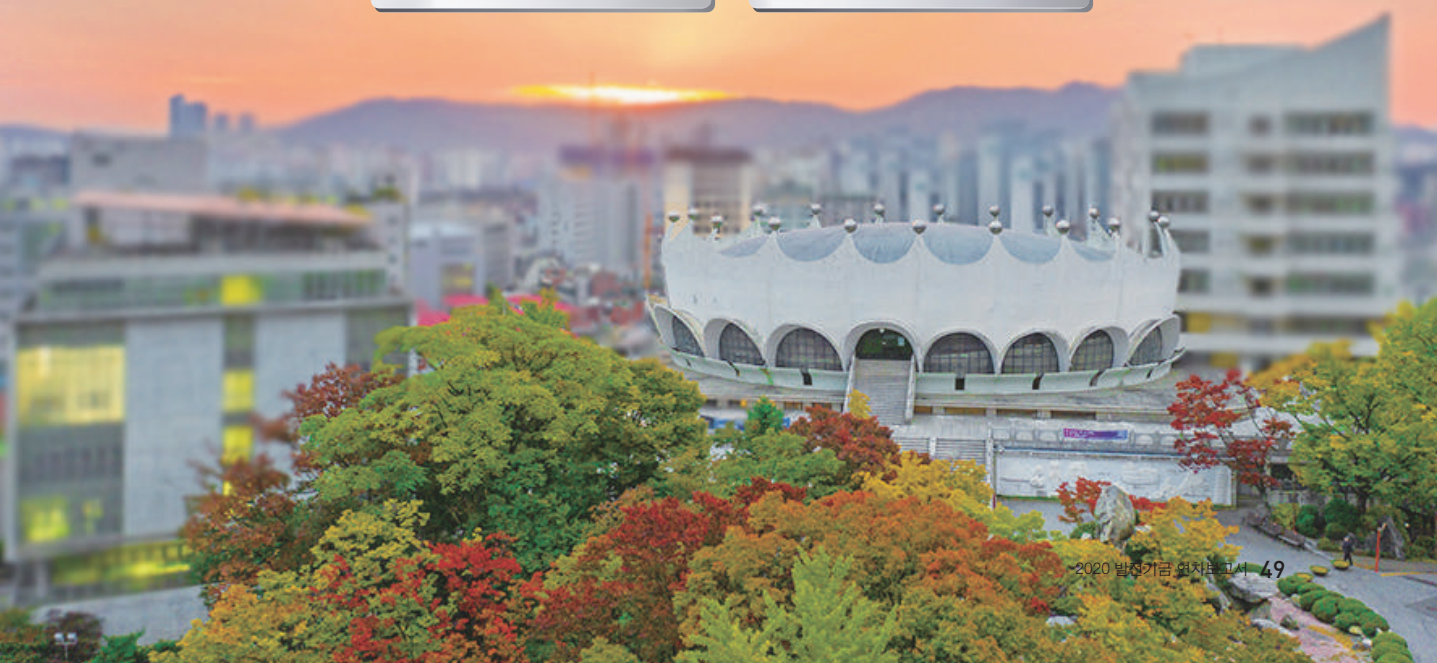
비 (정지훈, 포스트모던음악01)

경희와 함께 행복하세요

최 은 희 (학부모)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가 행복하길

일반인 예시



Arts & Design Hall

A&D홀 객석기부 캠페인

예술의 향기로 가득한 문화 공간

현대적 감각과 고전적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예술 · 디자인대학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구성된 무대 설비가 560석의 관람석에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등 규모와 설비에서 한국의 주요 공연장에 손색없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예술 창작의 산실

연극과 뮤지컬, 음악과 무용, 영상 상영과 각종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의 공연 예술을 구현할 수 있는 복합 공연장으로서, 미래 문화를 선도할 경희의 우수한 인재들은 물론, 지역 및 현장의 예술가들의 주요 활동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예술 협력 브릿지

세계평화의 날 행사, 중국문화의 날 기념공연 등 다양하고 굵직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K-Culture를 넘어 세계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A&D 홀은

「객석기부」는 객석의자에 기부자의 이름과 이야기를 새기는 대표적인 기부문화로, 예술과 예술가를 후원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이자, 예술의 가치를 믿는 당신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 예술의 전당 –

여러분의 손에서 **경희 예술의 미래와 희망**이 펼쳐집니다.
기부금은 **A&D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예술로 세상을 디자인하라!"

당신의 객석에 예술을 향한 나눔의 여운을 남겨주십시오.

경희 예술과 당신을 기억하는 특별한 방법

기부약정서 작성

1. 기부 희망 좌석종류 선택 및 명판 문구 작성
2. 문자, 이메일로 약정서 발송

* 좌석은 기부금 납입순으로 배정

기부금 납입 및 명판 제작

1. 약정 후 7일 이내로 기부금 입금
2. 예우품 발송(2–3주 소요)
3. 명판 제작(2021년 상반기 일괄 제작 예정)

기부자 예우

1. 기부 객석에 명판 부착(보존기간 10년)
2. 기부 홍보채널에 기부자의 나눔 이야기 게재
3. 법정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 발급
4. 경희 문화예술 소식 및 온라인 콘텐츠 공유

고액 기부자께는 별도 맞춤형 특별 예우 제공

예술 · 디자인대학 주최 정기공연 및 콘서트 무료관람 혜택
(관람 시, 기부자 본인 명판이 새겨진 지정석 배정)

Arts & Design Hall

경희대 개교 72주년

| 경희사랑 나눔 캠페인 |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경희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사회,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http://개교72주년-경희사랑나눔캠페인.kr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후원금 전액은 코로나 위기 속 재학생을 위한
생활지원 장학금 및 취업준비생 지원에 사용되며,
기부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경희 기념품을 드립니다.

01 7만2천원 기부하고 경희와 동행하기

경희골프공세트 or 경희홍삼원기진액

02 72만원 기부하고 경희와 사랑나누기

경희와인세트 + 아너스월 기부자 네이밍

03 720만원 기부하고 경희와 행복하기

경희한방공진단 + 아너스월 기부자 네이밍

※ 캠페인 진행기간 : **2022. 2월까지**

|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1 · 1 · 1 법칙
1달에 1억을 만드는 1만 인의 기적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이란?

경희를 상징하는 동물인 사자처럼 거침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경희인의 기부 모임입니다.
학술과 전통을 계승하는 21세기 미래대학을 위해 경희대학교에
매월 1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 일만 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만 명이 만드는 1만 모금의 법칙

"1만 명 × 1만 원 = 1억"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요.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에서 적을 베는 승부의 시간은 짧지만 1천 일,
1만 일을 이 순간만을 위해 노력한 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1만 모금의 법칙은 경희를 사랑하는 일만
명의 화합을 일구어내는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1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루 식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화 관람비로 지출되는 소액 비용입니다.
하지만 1만 원을 1만 명이 1달 동안 기부한다면 경희를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교의 발전과 경희의 도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회원 특전 |

가입 선물

경희와인 × 고블렛 와인잔 세트

2021. 12 ~ 2022. 1

회원 가입자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뉴스레터 발송

최신학교 소식과 모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이언 일만인클럽 데이 초청

가족과 함께하는 모교 초청 행사에 초대

연말 대학 달력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행

설립자 글

"사랑하는 경희인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은 재주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재주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만 성공하지만 노력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드 '경희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강인한 의지와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경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희학원 설립자 고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경희후원의 집

| 매그놀리아 하우스 |

경희대학교 후원의집 **매그놀리아 하우스**란?

매그놀리아 하우스는 경희대학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업체로서, 경희대학교의 발전과 학업에 대한 열정과 꿈이 가득한 학생의 장학금을 후원하는 기부클럽을 말합니다. 경희대학교 후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0여개가 넘는 '매그놀리아 하우스'의 소중한 마음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매그놀리아 하우스 기부금의 뜻깊은 쓰임

매그놀리아 하우스 회원으로 보내주신 기부금은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매그놀리아 하우스에서 모아주신 기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한 경희대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지역사회 지원사업

지역사회로부터 경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로 되돌려 드려 사랑의 선순환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KYUNG HEE
MAGNOLIA HOUSE

경희 매그놀리아 하우스

매그놀리아 하우스 참여시 약정금액별로 경희대학교에서 준비한 다양한 기부 예우를 제공합니다.

구 분		월 5만원	월 10만원	월 15만원 이상
공통예우	명 패	매그놀리아하우스 현판		
	연 말	총장서신, 연하장 및 달력, 대학 홍보물		
	행 사	매그놀리아 하우스 장학금 증정식 초청		
	홍 보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		
추가예우	예 우 품	웰컴키트	웰컴키트	웰컴키트(KH공진단)
	주 차 권	연간 12매 제공 (1시간)	연간 12매 제공 (6시간)	연간 24매 제공 (6시간)
	명절예우	-	설, 추석	설, 추석
	재약정시	70주년 경희 기념 와인	70주년 경희 기념 와인	70주년 경희 기념 와인set

매그놀리아 하우스 현판

웰컴키트

명절선물

주차권

경희 기념 와인

Kyung Hee University

Giver 기부자 명단 (2020.03.01.~2021.2.28.)

10억 원 이상 - 2명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 원 이상 - 11명

김애경 | 이용익 | 정준수 | ㈜뉴메드 | 우가주치과병원 | (주)대원고속 | (주)한국씨티은행 | 농어촌희망재단 | 롯데장학재단 | 아산사회복지재단 | 메가스터디교육(주)

1천만 원 이상 - 111명

개인

YusukeYamauchi | 권오병 | 권장혁 | 김동선 | 김완길 | 김중배 | 김철웅 | 김학민 | 김현우 | 김호철 | 류동목 | 문병찬 | 박권욱 | 박영구 | 박준봉 | 성기석 | 손혁상 | 양덕춘 | 여승근 | 윤기중 | 윤여준 | 윤우섭 | 이상언 | 이송 | 이영희 | 이요셉 | 이재호 | 이한구 | 이호재 | 장윤석 | 전진수 | 조병태 | 최재영 | 하태수 | 한명주 | 한승무 | 홍성준 | 홍충선

기업 및 단체

(사)대한민국배구협회 | (재)오뚜기함태호재단 | (재)현대차정몽구재단 | (재)현송교육문화재단 | (주)네오바이오텍 | (주)다우기술 | (주)대진 | (주)덴티움 | (주)비상교육 | (주)씨피에프 | (주)유명골프클럽 | (주)유웨이어플라이 | (주)제테마 | (주)퍼슨 | GKL사회공헌 | KPX문화재단 | 갑산한의원 | 강남구청장학 | 경희 럭비 OB 동문회 | 고촌재단 | 공익법인 지케이엘 사회공헌재단 | 광주시민장학회 | 구스타(주) | 구원장학재단 | 국민은행 신매탄지점 |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 기흥관광개발(주) | 동화약품 | 두산연강재단 | 맨하탄청원치과 | 메가엠디 주식회사 | 문주장학재단 | 미래인재육성재단 | 삼성꿈장학재단 | 삼성복지재단 | 삼송장학회 | 생명보험협회 | 서울장학재단 | 성남시장학회 | 성옥문화재단 | 센트럴청원치과의원 | 송파재단 | 신라문화장학재단 | 신세계청원치과의원 | 앨트웰민초장학재단 | 엘지디스플레이(주) | 오스템임플란트(주) | 우덕재단 | 유한재단 | 유한회사 디온커뮤니케이션 | 일주학술문화재단 | 재단법인 DB김준기문화재단 | 재단법인 상록 |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 | 재단법인 오케이배정장학재단 | 재단법인 용운장학재단 | 정수장학재단 | 주식회사 웨이드 |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 참조은치과병원 | 케이티텔레캅 | 클린씨유 | 태성장학회 | 티플러스치과의원 | 하나금융나눔재단 |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장학재단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해성문화재단 | 형애장학회 | 홍산장학재단 | 홍성표내과의원 | 흥한재단

1백만 원 이상 – 464명

개인

Ramchandra Balaji Pode | 강민지 | 강석희 | 강영미 | 강인애 | 강지천 | 강훈식 | 故이수병 | 고재윤 | 구영 | 권기붕 | 권도형 | 권순필 | 권일근 | 권필목 | 권혁상 | 김경순 | 김경아 | 김경옥 | 김경일 | 김금자 | 김동연 | 김범중 | 김봉구 | 김봉규 | 김상영 | 김상욱 | 김상혁 | 김상훈 | 김송미 | 김수진 | 김승일 | 김승준 | 김양제 | 김연정 | 김영관 | 김영도 | 김영미 | 김영주 | 김영진 | 김용관 | 김우식 | 김윤일 | 김윤희 | 김은영 | 김응남 | 김이삭 | 김정부 | 김정애 | 김정화 | 김정훈 | 김주연 | 김주훈 | 김주희 | 김준현 | 김준형 | 김중섭 | 김지식 | 김지연 | 김진상 | 김찬기 | 김창주 | 김태경 | 김태형 | 김필수 | 김학민 | 김한원 | 김현덕 | 김현동 | 김현식 | 김현태 | 김형민 | 김혜경 | 김혜영 | 김훈경 | 김휘용 | 김흥모 | 김희상 | 남상욱 | 남윤자 | 남형식 | 노진우 | 레쥬비 | 류미경 | 목정수 | 문석윤 | 문형욱 | 민경만 | 민병일 | 민성욱 | 민인식 | 박규창 | 박근형 | 박능석 | 박민숙 | 박민여 | 박상모 | 박선희 | 박승민 | 박영수 | 박인철 | 박정미 | 박정우 | 박정원 | 박종국 | 박주홍 | 박현서 | 박훤일 | 반건호 | 배아란 | 서민철 | 서영수 | 서정진 | 서종현 | 서충옥 | 석소현 | 소웅섭 | 손문기 | 손수호 | 송상호 | 송예은 | 송재규 | 송주빈 | 신건철 | 신기순 | 신성희 | 신승윤 | 신은주 | 신혜숙 | 안상준 | 안승억 | 안영훈 | 안재욱 | 안정선 | 안현수 | 엄귀순 | 엄신흠 | 염상국 | 오동재 | 오윤자 | 오정숙 | 오종민 | 오지영 | 오혜경 | 우정택 | 원규연 | 위정국 | 유순지 | 유영주 | 유옥재 | 유원준 | 유정칠 | 윤경숙 | 윤기선 | 윤민상 | 윤영아 | 윤은경 | 윤태영 | 이경희 | 이구형 | 이근하 | 이근혁 | 이기태 | 이덕재 | 이동훈 | 이무길 | 이미경 | 이상규 | 이상만 | 이상목 | 이상정 | 이샛별 | 이선이 | 이성재 | 이성현 | 이수현 | 이승구 | 이승우 | 이신숙 | 이아경 | 이아롬 | 이영남 | 이영석 | 이영순 | 이영주 | 이용우 | 이원용 | 이윤정 | 이윤형 | 이은주 | 이인석 | 이재권 | 이재동 | 이재열 | 이정근 | 이정민 | 이정희 | 이제승 | 이종하 | 이주석 | 이주하 | 이준영 | 이지아 | 이현석 | 이현숙 | 이현정 | 이화형 | 이환호 | 이희경 | 이희돈 | 임동순 | 임사비나 | 임신자 | 임운영 | 임지수 | 임혜진 | 장경은 | 장석원 | 장순기 | 장애경 | 장우창 | 장윤혁 | 장준혁 | 장호남 | 전성호 | 전재준 | 전종득 | 정극모 | 정기홍 | 정민형 | 정샛별 | 정서영 | 정소영 | 정소진 | 정연희 | 정용석 | 정자용 | 정준호 | 정지호 | 정진봉 | 정창근 | 정환욱 | 제유진 | 조복희 | 조세형 | 조영하 | 조윤제 | 조종만 | 조지영 | 조진성 | 조현용 | 주서령 | 주성재 | 지정호 | 진영호 | 차미호 | 차송희 | 차웅석 | 차정훈 | 창덕안 | 최수영 | 최우진 | 최재우 | 최진혁 | 최현묵 | 최효은 | 하상수 | 하태영 | 한경자 | 한경훈 | 한광령 | 한봉섭 | 한용환 | 한정원 | 허의남 | 현동욱 | 현종주 | 홍권기 | 홍승재 | 홍일기 | 홍지민 | 홍형옥 | 황규대 | 황복성 | 황수현 | 황원주 | 황유시 | 황윤섭 | 황조혜 | 황주호 | 황철수

기업 및 단체

(사)동해연구회 |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 (재)백운장학재단 | (재)송천재단 | (재)인촌기념회 | (재)한독제석재단 | (재)한석경 함흥장학회 | (주) 파란불에길건너기 | (주)광우메딕스 | (주)기산바이오텍 | (주)꾸욱꾸욱 | (주)누리미디어 | (주)대구은행 | (주)더오픈프로덕트 | (주)더프라이데이픽처스 | (주)레드시퀀스 | (주)바이킹스리그 | (주)빌라노 | (주)삼중전력 | (주)서초교통 | (주)아이에스엠레오스코프 | (주)에버텍 교역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주)예낭아이앤씨 | (주)옴니허브 | (주)와이넬 | (주)와이케이테크 | (주)이타임테크 | (주)청명농장 | (주)클레버이앤엠 | (주)태영건설 | (주)파크프로덕션 | 15 약학과 동문회 | Dreamus Company | 가구쑈 | 가이드치과 | 강남푸른정형외과의원 | 강원시설물(주) | 경기영화학교연합 | 경희 선 한의원 | 경희김상수한의원 | 경희대 TECH 태권도장 | 경희대고황동우회 | 경희대학교 응용과학대학 학생회(9,10,11대)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15학번 | 경희미르애한의원 | 경희배흘림 한의원 | 경희사람과나무한의원 | 경희사랑나무한의원 | 경희한의원 | 경희힘찬한의원 | 계룡건설산업(주) | 김남윤치과의원 | 김안과의원 | 김현우내과의원 | 남양미래안과 | 농업회사(주)피그랜드 | 대명한의원 | 대상문화재단 | 도서출판 현문사 | 동대문구약사회 | 동산콘크리트산업(주) | 동의보감한의원 | 리더밸리 | 맘편한내과 | 매원장학재단 | 명이비인후과의원 | 문숙장학재단 | 문화광광산업경영과정 37기 | 미국 보훈처 | 미래의동반자재단 | 바이바이섭 | 백계장학회(김종호) | 백록당한의원 | 복음수양관 | 복음장학회 | 비엘클리 피부과 성형외과의원 | 빅문 (BIGMOON) | 사단법인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 사상참경희한의원 | 사천소방서 | 사학과 민주동문회 |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

사회복지법인건아재단 |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 삼성한의원 | 삼일문화재단 | 서울경희한의원 | 서울시 한약사회 | 성동구청 | 성음문화재단 | 세아해암학술장학 | 세코툴스코리아(주) | 송정길내과의원 | 수문사 | 수생태복원(주) | 수현네 횟집 |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 신대방가정의학과의원 | 신앤범치과의원 | 실습농장(생명과학대학) | 심명문화재단 | 심팩최진식장학재단 | 싸이스트(주) | 약학과 76학번 동기회 | 엘림장학회 | 연재장학재단 | 예온치과의원 | 오성장학재단 | 온산공단장학위원회 | 우석문화재단 | 우영기획 | 원일전선판매주식회사 | 윈치과의원 | 이건내과 | 이민영장학회 | 李스테파노장학회 | 인송문화재단 | 재단법인 가송재단 |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 재단법인 금샘문화재단 | 재단법인 대은강완석장학재단 | 재단법인 선현 | 재단법인 송화재단 |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 재단법인 정암장학회 | 재단법인 제봉민병욱장학재단 | 재단법인 준제장학회 | 재단법인 진암장학재단 | 재단법인 케이알엑스국민행복재단 | 재단법인 해인장학재단 | 재단법인성혜장학회 | 정도생약 | 정산장학재단 | 제주보화당한의원 | 주)자영메디칼 | 주)지텔레마 | ㈜도서출판 북스힐 | 주식회사 모노건축사사무소 | ㈜와이엠티 | 천안우리병원 | 천호한의원 | 철원소방서 | 청호불교문화원 | 치과대학 28기 |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동문회 | 칠성농산공판장 | 카페파스쿠찌 |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 | 하림장학재단 | 하이스트시스템(주) | 하이트진로홀딩스(주) |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 한국라이온스 354-C 지구 장학회 | 한국마스크 | 한국이앤엑스(KIMES) | 한빛의원 | 현풍경희한의원 | 협성문화재단 | 형남진장학재단 | 형제전기주식회사 | 홍제한의원 | 홍천소방서 | 효성한의원

1백만 원 미만 - 1,599명

개인

Baye Boucar Diouf | CHEN SONGZHE | CHEN YINGSHAN | JIANG SHUFANG | KEWALIN SIMUANG | Mallory Mativenga | NG HONG WANG AUSTIN | Shymanska, Alina | Tetsuya Magara | Walker Bright James | 가우림 | 강경은 | 강경태 | 강규민 | 강남석 | 강덕현 | 강민순 | 강민지 | 강병걸 | 강병민 | 강선구 | 강성욱 | 강성원 | 강성은 | 강성호 | 강수일 | 강수현 | 강애솔 | 강윤구 | 강은정 | 강은주 | 강은진 | 강인규 | 강재선 | 강정미 | 강준구 | 강지숙 | 강진묵 | 강철종 | 강태진 | 강필정 | 강하윤 | 강현구 | 강형규 | 강형준 | 강혜원 | 강호근 | 강호정 | 강효백 | 강희석 | 고경보 | 고광덕 | 고동완 | 고두현 | 고석오 | 고성규 | 고성우 | 고정환 | 고진삼 | 고창남 | 고하나 | 고혁기 | 고 흥 | 고희전 | 공덕일 | 공용철 | 공우석 | 공천석 | 공해린 | 곽민욱 | 곽소영 | 곽영아 | 곽정함 | 곽종성 | 구교섭 | 구도희 | 구민숙 | 구민지 | 구영준 | 구종기 | 구태영 | 구태운 | 구현주 | 권강환 | 권구현 | 권긍록 | 권기덕 | 권기하 | 권범석 | 권성인 | 권세은 | 권세환 | 권영균 | 권영환 | 권오재 | 권오혁 | 권오희 | 권용수 | 권은정 | 권재열 | 권준석 | 권태순 | 권태연 | 권현숙 | 금호섭 | 기성훈 | 기세대 | 기영현 | 기정아 | 기희강 | 길재호 | 길주형 | 김가현 | 김갑성 | 김강일 | 김경선 | 김경수 | 김경태 | 김경표 | 김경현 | 김경희 | 김관혁 | 김광수 | 김광순 | 김광우 | 김광재 | 김광종 | 김광표 | 김권일 | 김규래 | 김규영 | 김규태 | 김근아 | 김기국 | 김기택 | 김기형 | 김낙우 | 김남경 | 김남일 | 김남중 | 김남희 | 김낭예 | 김다현 | 김다혜 | 김대기 | 김대성 | 김덕기 | 김덕길 | 김도균 | 김도연 | 김도원 | 김동건 | 김동우 | 김동욱 | 김동준 | 김동찬 | 김동현 | 김동환 | 김만재 | 김명현 | 김무균 | 김무용 | 김미경 | 김미선 | 김미옥 | 김미은 | 김미정 | 김미혜 | 김미희 | 김민겸 | 김민경 | 김민석 | 김민재 | 김민정 | 김민주 | 김밝은 | 김범지 | 김범진 | 김병우 | 김병찬 | 김병택 | 김병학 | 김보리 | 김보영 | 김상욱 | 김상준 | 김상태 | 김상택 | 김상한 | 김상현 | 김상희 | 김석태 | 김선광 | 김선봉 | 김선영 | 김선용 | 김선화 | 김선희 | 김성규 | 김성님 | 김성룡 | 김성민 | 김성수 | 김성우 | 김성웅 | 김성현 | 김성환 | 김성훈 | 김성희 | 김세웅 | 김세은 | 김소명 | 김소연 | 김소현 | 김송은 | 김수경 | 김수민 | 김수연 | 김수완 | 김수윤 | 김수이 | 김수현 | 김수형 | 김승림 | 김승석 | 김승욱 | 김승일 | 김승주 | 김승준 | 김승희 | 김시원 | 김양균 | 김양석 | 김연섭 | 김연재 | 김연종 | 김연진 | 김연하 | 김영규 | 김영근 | 김영근 | 김영낙 | 김영덕 | 김영동 | 김영란 | 김영미 | 김영식 | 김영신 | 김영재 | 김영진 | 김영철 | 김영태 | 김영택 | 김영희 | 김예화 | 김옥경 | 김용걸 | 김용겸 | 김용권 | 김용석 | 김용은 | 김용태 | 김용평 | 김용호 | 김용화 | 김용환 | 김욱재 | 김욱진 | 김운성 | 김유경 | 김유빈 | 김유선 | 김유진 | 김윤경 | 김윤범 | 김윤서 | 김윤선 | 김윤지 | 김윤홍 | 김윤화 | 김윤회 | 김윤희 | 김율립 | 김은선 | 김은영 | 김은정 | 김이라 |

김이솝 | 김인겸 | 김재경 | 김재균 | 김재우 | 김재인 | 김재호 | 김재홍 | 김정미 | 김정산 | 김정호 | 김정희 | 김제열 | 김종민 | 김종배 | 김종범 | 김종복 | 김종선 | 김종수 | 김종옥 | 김종우 | 김종원 | 김종인 | 김종한 | 김종현 | 김종호 | 김주영 | 김주철 | 김주현 | 김주형 | 김준엽 | 김중화 | 김지석 | 김지연 | 김지영 | 김지원 | 김지유 | 김지일 | 김진교 | 김진기 | 김진상 | 김진섭 | 김진성 | 김진수 | 김진영 | 김진희 | 김 찬 | 김창목 | 김창헌 | 김천형 | 김철규 | 김철수 | 김철완 | 김철원 | 김춘식 | 김태근 | 김태금 | 김태범 | 김태용 | 김태우 | 김태진 | 김태하 | 김태현 | 김태휘 | 김태희 | 김하늘 | 김하연 | 김학원 | 김학정 | 김해영 | 김해인 | 김향란 | 김헌관 | 김 현 | 김현석 | 김현성 | 김현수 | 김현유 | 김현정 | 김현준 | 김현진 | 김형규 | 김형성 | 김혜경 | 김혜란 | 김혜빈 | 김혜현 | 김호영 | 김호인 | 김호준 | 김홍래 | 김홍률 | 김홍연 | 김화영 | 김화용 | 김화정 | 김화진 | 김효수 | 김효식 | 김효준 | 김효진 | 김후남 | 김흥대 | 김희순 | 김희열 | 김희정 | 김희환 | 나근희 | 나기선 | 나의성 | 남궁혁 | 남기원 | 남보현 | 남상수 | 남소영 | 남순건 | 남영수 | 남윤재 | 남지혜 | 남진영 | 남태욱 | 남혜정 | 노대건 | 노동섭 | 노동일 | 노순천 | 노승헌 | 노승호 | 노원기 | 노이령 | 노지원 | 노현정 | 노현종 | 노현화 | 다나카유키야 | 류문주 | 류상우 | 류소현 | 류재인 | 류지영 | 류진 | 마서영 | 마현희 | 모경륜 | 목경열 | 문경민 | 문병원 | 문상관 | 문상기 | 문성배 | 문수영 | 문승우 | 문용재 | 문일주 | 문종택 | 문준수 | 문지희 | 문필동 | 문하은 | 민경민 | 민관동 | 민여련 | 민준영 | 박건민 | 박경규 | 박경옥 | 박경준 | 박경희 | 박광진 | 박근성 | 박기호 | 박대순 | 박동현 | 박명만 | 박명서 | 박명진 | 박미나 | 박미라 | 박미애 | 박민영 | 박민철 | 박병규 | 박보영 | 박상민 | 박상우 | 박상욱 | 박상일 | 박상찬 | 박상철 | 박상후 | 박상희 | 박서영 | 박선영 | 박성구 | 박성규 | 박성연 | 박성욱 | 박성재 | 박성준 | 박성호 | 박성화 | 박성희 | 박세숙 | 박세은 | 박세인 | 박세현 | 박세환 | 박소영 | 박수란 | 박수인 | 박수일 | 박수자 | 박수종 | 박순기 | 박승규 | 박승훈 | 박신애 | 박신의 | 박영석 | 박영선 | 박영숙 | 박영식 | 박영재 | 박예진 | 박완수 | 박용섭 | 박우성 | 박우현 | 박유경 | 박유진 | 박윤근 | 박윤수 | 박은규 | 박은별 | 박은지 | 박자은 | 박재규 | 박재우 | 박정수 | 박정숙 | 박정영 | 박정화 | 박정훈 | 박종갑 | 박종규 | 박종률 | 박종범 | 박종욱 | 박종집 | 박종찬 | 박주석 | 박주영 | 박 준 | 박준규 | 박준기 | 박준영 | 박지은 | 박지호 | 박진구 | 박진수 | 박진호 | 박진희 | 박 찬 | 박찬법 | 박찬호 | 박창훈 | 박태진 | 박택운 | 박하영 | 박한종 | 박해순 | 박해일 | 박 현 | 박현숙 | 박현정 | 박현종 | 박형규 | 박혜영 | 박홍근 | 박환희 | 박흥민 | 박흥순 | 박희수 | 박희제 | 박희현 | 박히준 | 방서현 | 방창현 | 방철호 | 배경민 | 배규석 | 배금옥 | 배소영 | 배현수 | 백 룡 | 백서연 | 백선우 | 백성선 | 백성진 | 백승선 | 백운식 | 백유상 | 백종우 | 백지원 | 백현숙 | 백형환 | 변송호 | 변영주 | 변정우 | 변호현 | 봉강훈 | 부 백 | 부성희 | 부영민 | 사카와 야스히로 | 서경아 | 서덕순 | 서동철 | 서명훈 | 서미희 | 서보학 | 서소정 | 서신재 | 서영균 | 서영호 | 서유미 | 서은혜 | 서재하 | 서정보 | 서종민 | 서준석 | 서행용 | 석광세 | 석창훈 | 석화숙 | 선대규 | 선종호 | 설 융 | 성열관 | 성은재 | 성주영 | 소미경 | 손경현 | 손국진 | 손백현 | 손승연 | 손승철 | 손용기 | 손용락 | 손정은 | 손종곤 | 손종역 | 손지혜 | 손희주 | 송기휴 | 송미연 | 송병권 | 송병섭 | 송영호 | 송우정 | 송유레 | 송유진 | 송재민 | 송재훈 | 송종국 | 송주영 | 송현권 | 송현욱 | 송형석 | 송혜경 | 송혜영 | 송호남 | 신가은 | 신광수 | 신광훈 | 신규승 | 신기준 | 신동숙 | 신동진 | 신명남 | 신명철 | 신상협 | 신소민 | 신예지 | 신왕수 | 신용규 | 신용철 | 신원균 | 신유경 | 신정우 | 신정은 | 신혜경 | 신희정 | 심규선 | 심범상 | 심성원 | 심원진 | 심인섭 | 심효섭 | 심희원 | 안광석 | 안광식 | 안광현 | 안규정 | 안금숙 | 안남일 | 안 녕 | 안덕균 | 안동근 | 안민호 | 안범철 | 안병조 | 안병주 | 안상수 | 안세영 | 안수찬 | 안숭범 | 안신명 | 안영민 | 안윤옥 | 안재영 | 안재훈 | 안주연 | 안진형 | 양민석 | 양성익 | 양승범 | 양시현 | 양영림 | 양웅모 | 양찬숙 | 양현택 | 양혜지 | 엄익철 | 엄재영 | 엄진호 | 엄형민 | 엄혜옥 | 여인영 | 여홍철 | 여화선 | 연정훈 | 염기진 | 오나선 | 오부전 | 오선민 | 오세윤 | 오세훈 | 오승윤 | 오승주 | 오승철 | 오승택 | 오애환 | 오영석 | 오영애 | 오예민 | 오윤서 | 오은희 | 오정훈 | 오주형 | 오준근 | 오준희 | 오중석 | 오지은 | 오진솔 | 오창일 | 오태경 | 오태석 | 오태호 | 오현택 | 오형나 | 오환섭 | 오희경 | 옥지훈 | 왕명자 | 왕영숙 | 왕호용 | 우금숙 | 우다현 | 우동연 | 우종일 | 우지연 | 우호순 | 우희철 | 원예닮 | 원창연 | 원태경 | 위세호 | 유가현 | 유건백 | 유건호 | 유경림 | 유경민 | 유광열 | 유길호 | 유동헌 | 유명종 | 유상희 | 유수진 | 유승록 | 유승현 | 유신정 | 유 열 | 유영춘 | 유용철 | 유웅선 | 유은정 | 유은형 | 유익형 | 유인태 | 유장준 | 유재욱 | 유재홍 | 유정목 | 유정아 | 유정현 | 유종만 | 유중근 | 유지명 | 유지은 | 유지인 | 유창규 | 유태형 | 유해수 | 유현경 | 유현석 | 육순형 | 윤경식 | 윤명식 | 윤상제 | 윤상협 | 윤석경 | 윤석영 | 윤석효 | 윤선민 | 윤성우 | 윤수연 | 윤순옥 | 윤여만 | 윤영수 | 윤용식 | 윤웅수 | 윤재훈 | 윤정원 | 윤제학 | 윤종욱 | 윤중석 | 윤지성 | 윤지웅 | 윤지원 | 윤지환 | 윤태석 | 윤태화 | 윤필영 | 윤현수 | 윤현준 | 윤형진 | 윤혜정 | 윤혜현 | 윤호선 | 윤홍빈 | 이가용 | 이강민 | 이건형 | 이경래 | 이경민 | 이경희 | 이계희 | 이광봉 | 이광조 | 이광희 | 이근영 | 이 금 | 이기봉 | 이기원 | 이기자 | 이기재 | 이기전 | 이기정 | 이남백 | 이동근 | 이동영 | 이동운 | 이동재 | 이동준 | 이동현 | 이만균 | 이명귀 | 이문철 | 이미경 | 이미숙 |

이민술 | 이민종 | 이민철 | 이민형 | 이민호 | 이범순 | 이범준 | 이병철 | 이보현 | 이봄비 | 이봉주 | 이부형 | 이상민 | 이상용 | 이상원 | 이상위 | 이상임 | 이상화 | 이상훈 | 이상휘 | 이상희 | 이새한 | 이서우 | 이석근 | 이석재 | 이석준 | 이선미 | 이선우 | 이성미 | 이성애 | 이성열 | 이성욱 | 이성원 | 이성인 | 이성일 | 이성조 | 이성호 | 이성훈 | 이세준 | 이소연 | 이수린 | 이수민 | 이수복 | 이수연 | 이수영 | 이수진 | 이숙경 | 이순표 | 이승민 | 이승연 | 이승재 | 이아영 | 이양완 | 이억이 | 이연우 | 이영구 | 이영식 | 이영신 | 이영연 | 이영주 | 이영학 | 이영훈 | 이용덕 | 이용석 | 이용섭 | 이용성 | 이용정 | 이용직 | 이용현 | 이우휘 | 이유미 | 이유정 | 이윤숙 | 이윤진 | 이은경 | 이은상 | 이은선 | 이은순 | 이은영 | 이은옥 | 이은주 | 이은화 | 이의주 | 이의한 | 이인수 | 이인재 | 이임정 | 이장훈 | 이재기 | 이재욱 | 이재홍 | 이정길 | 이정무 | 이정수 | 이정원 | 이정은 | 이정현 | 이정환 | 이정훈 | 이젬마 | 이종구 | 이종길 | 이종락 | 이종범 | 이종석 | 이종수 | 이종훈 | 이좌지자 | 이주현 | 이주희 | 이준규 | 이준태 | 이준혁 | 이준호 | 이준희 | 이지선 | 이지영 | 이지우 | 이지은 | 이지홍 | 이지희 | 이진무 | 이진석 | 이진섭 | 이진수 | 이진용 | 이진원 | 이진주 | 이진표 | 이진혁 | 이창건 | 이창민 | 이창재 | 이창주 | 이창훈 | 이천일 | 이춘한 | 이충기 | 이탄군 | 이하현 | 이한규 | 이한순 | 이혁준 | 이혁진 | 이현숙 | 이현식 | 이현우 | 이형구 | 이형래 | 이형수 | 이형은 | 이혜란 | 이혜련 | 이혜민 | 이혜원 | 이혜진 | 이 호 | 이호기 | 이호선 | 이호재 | 이홍심 | 이화용 | 이효석 | 이휘민 | 이흥순 | 이희영 | 이희정 | 이희포 | 인경수 | 인신영 | 인창식 | 임관혁 | 임광재 | 임교범 | 임규섭 | 임길호 | 임대영 | 임도형 | 임부자 | 임선홍 | 임성열 | 임성준 | 임수빈 | 임수진 | 임양래 | 임여진 | 임연희 | 임영우 | 임윤숙 | 임재심 | 임정미 | 임종일 | 임주현 | 임준원 | 임지우 | 임지원 | 임진택 | 임춘식 | 임혜린 | 임효빈 | 장규태 | 장기명 | 장대식 | 장덕환 | 장문석 | 장미내 | 장미희 | 장민환 | 장백기 | 장보아 | 장봉기 | 장상준 | 장석민 | 장성규 | 장성은 | 장성준 | 장세윤 | 장세희 | 장소영 | 장수영 | 장영표 | 장인석 | 장정화 | 장준복 | 장지성 | 장지연 | 장지호 | 장창곤 | 장창영 | 장하늘 | 장형서 | 장형진 | 전경주 | 전동환 | 전복실 | 전성준 | 전양호 | 전 영 | 전영은 | 전영철 | 전용주 | 전윤형 | 전정덕 | 전준영 | 전준호 | 전중환 | 전지아 | 전현신 | 전호민 | 정광식 | 정권재 | 정기용 | 정만수 | 정 명 | 정민교 | 정민석 | 정민섭 | 정민숙 | 정병무 | 정봉기 | 정석구 | 정석희 | 정선화 | 정성모 | 정성철 | 정수지 | 정순영 | 정승환 | 정연돈 | 정영렬 | 정영재 | 정용주 | 정우상 | 정우진 | 정 웅 | 정원규 | 정원석 | 정원식 | 정원재 | 정유석 | 정윤성 | 정윤정 | 정윤지 | 정은경 | 정은지 | 정의용 | 정의헌 | 정이나 | 정인경 | 정인순 | 정일영 | 정재돈 | 정재욱 | 정재은 | 정재현 | 정재호 | 정정철 | 정종천 | 정종태 | 정종혁 | 정주영 | 정준모 | 정지윤 | 정지현 | 정진모 | 정진무 | 정진욱 | 정진훈 | 정창모 | 정창안 | 정창현 | 정천규 | 정철현 | 정태언 | 정해랑 | 정헌종 | 정혁상 | 정 현 | 정현철 | 정현향 | 정혜리 | 정혜정 | 정회민 | 정효선 | 정효진 | 정휘진 | 정희재 | 제정진 | 조경선 | 조기정 | 조기호 | 조동환 | 조두행 | 조무성 | 조미희 | 조민형 | 조병락 | 조선행 | 조성우 | 조성인 | 조성훈 | 조소연 | 조수아 | 조양래 | 조영호 | 조용남 | 조용범 | 조용우 | 조웅희 | 조원현 | 조유정 | 조윤정 | 조은수 | 조은아 | 조익현 | 조인숙 | 조인행 | 조장희 | 조정호 | 조정화 | 조종구 | 조중환 | 조진연 | 조진형 | 조창오 | 조 철 | 조한육 | 조현승 | 조홍규 | 주진희 | 주현미 | 주형배 | 지구삼 | 지상현 | 지성환 | 지수정 | 지승렬 | 지용석 | 지준선 | 진기오 | 진기준 | 진대수 | 진소정 | 진영근 | 진영종 | 진재호 | 진한도 | 진 호 | 차성환 | 차재량 | 차종환 | 차준심 | 차충환 | 채규병 | 채윤병 | 채은혜 | 천경년 | 천유정 | 최관호 | 최광선 | 최광식 | 최광준 | 최규리 | 최기원 | 최도영 | 최동원 | 최동준 | 최문식 | 최민식 | 최병준 | 최병태 | 최병희 | 최보광 | 최보영 | 최봉용 | 최상현 | 최서연 | 최서희 | 최석호 | 최선호 | 최선희 | 최성규 | 최성현 | 최세훈 | 최순욱 | 최승권 | 최승용 | 최영원 | 최영태 | 최용안 | 최용원 | 최우영 | 최우인 | 최운섭 | 최원녕 | 최윤미 | 최윤영 | 최윤희 | 최은수 | 최은주 | 최인건 | 최인화 | 최정우 | 최정원 | 최정인 | 최정혜 | 최종세 | 최주철 | 최지선 | 최지연 | 최지영 | 최지윤 | 최지희 | 최진구 | 최진무 | 최진우 | 최찬솔 | 최창용 | 최철웅 | 최필호 | 최현미 | 최형민 | 최혜원 | 최호석 | 최호선 | 최호영 | 최희섭 | 최희영 | 최희용 | 추현주 | 태윤희 | 통영강 | 하륜호 | 하미경 | 하수혁 | 하승엽 | 하안나 | 하혜림 | 한경희 | 한균태 | 한기광 | 한다현 | 한대희 | 한덕영 | 한명남 | 한미소 | 한미연 | 한부현 | 한 상 | 한상진 | 한성호 | 한성희 | 한세화 | 한수경 | 한영신 | 한은희 | 한자경 | 한정섭 | 한종원 | 한지민 | 한진수 | 한진희 | 한창용 | 한충완 | 한치근 | 한현우 | 한혜경 | 함대현 | 함태승 | 함현숙 | 함현지 | 허균영 | 허남화 | 허두용 | 허성훈 | 허수영 | 허윤호 | 허정익 | 허정일 | 현종훈 | 현혜원 | 호종빈 | 홍경화 | 홍경희 | 홍나래 | 홍명기 | 홍명희 | 홍범일 | 홍상우 | 홍석표 | 홍성연 | 홍성윤 | 홍순만 | 홍승윤 | 홍신영 | 홍아름 | 홍영식 | 홍옥순 | 홍우혁 | 홍유진 | 홍윤기 | 홍전일 | 홍종두 | 홍주완 | 홍춘기 | 홍현경 | 홍혜정 | 황건순 | 황교선 | 황문호 | 황범주 | 황보현우 | 황봉희 | 황석종 | 황선빈 | 황선희 | 황용국 | 황은숙 | 황은정 | 황인성 | 황인철 | 황일원 | 황재훈 | 황지인 | 황지홍 | 황진국 | 황진재 | 황현도 | 황호원

기업 및 단체

(주)성창이엠씨 | (주)아시트리움 | (주)태그미디어 | (주)훈프로 | e-조은치과의원 | e튼튼치과 | GLEE(경희대학교 합창단) | 가나이비인후과 가리봉의원 | 감귤나무숲 | 강형욱 뉴욕 100세 치과 | 건강한성심의원 | 경희대신나무태권도 | 경희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MDOP 경희병원 | 과천시애향장학회 | 곽이비인후과 | 구&배 소아청소년과 | 굿모닝치과 | 굿윌치과병원하단 | 금산부인과의원 | 김성기치과 | 김승국소아과의원 | 김태영외과의원 | 넝쿨치과 | 다나이비인후과 | 더블유스타일치과의원 | 도서출판하우 | 동대문 의류패션 협동조합 | 동백쥬니어치과 | 동인한의원 | 두산 매거진 | 드림팩토리 치과 | 루덴치과 | 마르지오비만크리닉 | 메세나치과의원 | 목동건치과 | 무진환경도예 | 미라클치과의원 | 미성형외과 | 미앤미치과의원 | 바른정형외과 | 박병대비뇨기과의원 | 박상원한의원 | 박상호 소아.청소년과의원 | 변상윤정형외과의원 | 보스톤 드림치과의원 | 본내과의원 | 비엠씨한의원 | 사계절이편한치과 | 사랑의원 | 사랑의치과 | 서비스투마인드(주) | 서울닥터우치과의원 | 서울수치과 | 서해의원 | 성모정신과의원 | 세무사 김상명 사무소 | 수명산경희한의원 | 시크릿성형외과의원 | 아름다운치과의원 | 아미치과의원 | 아이자람어린이치과의원 | 어중건내과의원 | 영치과 | 예샘궁치과 | 용인쥬니어치과 | 우면본치과 | 웰치과의원 | 유이비인후과의원 | 육육아이디치과 | 윤영혜산부인과의원 | 이종원내과 | 이종익내과의원 | 이즈치과 | 이튼타워치과의원 | 이하영소아과의원 | 자연앤치과의원 | 장푸른누리 | 재단법인 주리원장학재단 | 전세영 법률사무소 | 정연치과 | 정정열한의원 | 주식회사 뉴런뮤직 | 주식회사 센시블 | 청라탑치과의원 | 체감한의원 | 태양당한의원 | 평택외과의원 | 하나로한의원 | 하나정형외과의원 | 하이치과의원 | 한국광기술원 | 한국전통음식문화원 | 한나산부인과 | 허브치과의원 | 허브치과의원 | 현대치과보철과치과의원 | 현대한의원

경희대학교 후원의 집

㈜두성디엔에스 | Haru&Aki Flowers | Joyjeiclavent | 갈비명가 이상 | 고기야미안해 | 광주회관 | 김앤박이비인후과 | 남문통닭 | 노바이탈리아노 | 다우전자(주) | 등촌샤브샤브칼국수 | 때지 | 맘스터치 | 문안과 | 반월 | 베나레스 | 복비뇨기과 | 비금도 | 비반트 | 삼부자갈비 | 샹그라 | 서천셰어하우스 | 소담샤브칼국수 | 아이데코안경 | 아지트라이브 | 연우피앤씨 | 영통복요리 | 오르다치과의원 | 오피스넥스 수원점 | 유성관 | 장터밥상 | 주호식당 | 착한낙지 | 청솔디자인 | 초우마을 | 총각칼국수 | 크로네 | 파르테 | 팔번가 | 평화철물건재 | 한국난원 | 한국순대 | 해송 | 홍학

경희에 큰 사랑을 전해주신 고마운 당신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예우,
품격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소중히 보답하겠습니다.

아너스클럽 회원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은 경희에 큰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을 경희만의 특별한 기부자클럽으로 모시고 **'경희 100년'**의 새길을 함께 열고자 발족했습니다. 경희가 명문사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학교 모금사업에 총 1억 원 이상 후원한 기부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선승	평화	고황	창의	창조	청운
10억 원 이상 후원	20억 원 이상 후원	30억 원 이상 후원	1억 원 이상 후원	3억 원 이상 후원	5억 원 이상 후원

아너스클럽 예우 프로그램

품격 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아너스클럽의 멤버십을 누리십시오.

- 기부금 전달식 개최
- 총장 초청 오찬 · 만찬 초대
- 명예의 전당(Donor's Wall) 헌정
- 신규회원 건강검진권 제공 및 의료비 감면
- 특별인터뷰 기사 게재
- 다양한 문화행사 초대(학교주관 특별행사, 음악회, 문화탐방 등)
- 맞춤형 예우

예우 프로그램

경희 발전을 위한 기부자님의 따뜻한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품격 있는 예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table>
<tr><th rowspan="3" colspan="2">구분</th><th rowspan="3" colspan="2">예우 내용</th><th colspan="2">매그놀리아 클럽</th><th colspan="7">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th></tr>
<tr><th rowspan="2">창의</th><th rowspan="2">창조</th><th rowspan="2">청운</th><th rowspan="2">선승</th><th rowspan="2">평화</th><th colspan="2">고황</th></tr>
<tr><th>1천만 원 이상</th><th>5천만 원 이상</th><th>1억 원 이상</th><th>3억 원 이상</th><th>5억 원 이상</th><th>10억 원 이상</th><th>20억 원 이상</th><th>30억 원 이상</th><th>50억 원 이상</th></tr>
<tr><td rowspan="2">기념품 및 간행물</td><td colspan="2">감사장 및 감사 선물
간행물, 달력 증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감사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특별초청</td><td colspan="2">교내외 공연 및 만찬 등 행사 초청</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명예 헌정</td><td colspan="2">명예의 전당</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기금 명칭 부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학교시설 이용편의</td><td colspan="2">평생 도서관 출입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평생 차량 출입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프로그램 할인</td><td colspan="2">본인 70%
직계존비속 30%</td><td colspan="2">본인 100%
직계존비속 50%</td><td colspan="5">본인 100%
직계존비속 70%</td></tr>
<tr><td rowspan="5">의료예우</td><td colspan="2">VIP 진료 서비스</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의료비 감면</td><td>본인
10%</td><td>본인
30%</td><td>본인
50%
배우자
30%</td><td>본인
70%
배우자
50%</td><td>본인
100%
배우자
50%</td><td>본인
100%
배우자
70%</td><td>본인
배우자
100%</td><td>본인
배우자
100%</td><td>본인
배우자
자녀
100%</td></tr>
<tr><td colspan="2">10년</td><td>20년</td><td colspan="6">본인/배우자 평생(자녀 20년)</td></tr>
<tr><td rowspan="2">건강검진권 증정</td><td>1회(최초)
(의료기관 기준 적용)</td><td></td><td>기본
검진권
2매</td><td>150만 원 상당
검진권 2매</td><td colspan="3">200만 원 상당 검진권 2매</td><td colspan="2">300만 원 상당 검진권 2매</td></tr>
<tr><td>추가 지원
(본인 및 배우자)</td><td></td><td colspan="2">기본검진권 2매 1회 제공</td><td colspan="3">기본건강검진권 2매 5회 제공
(2년 주기)</td><td colspan="2">기본건강검진권 2매 10회 제공(2년 주기)</td></tr>
<tr><td colspan="2" rowspan="2">장례식장 시설사용료</td><td colspan="2">경희의료원 40%,
강동경희대병원 20%</td><td colspan="8">무료</td></tr>
<tr><td colspan="10">※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할인은 상조회사 가입 시 제외</td></tr>
<tr><td>네이밍예우</td><td colspan="3"></td><td colspan="2">로비명패</td><td colspan="6">강의실·실험실 명칭</td><td>건물명칭</td></tr>
</table>

세제 혜택(법정기부금)

개인 기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초과분은 기부금의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

법인세법에 따라 연간 이익 금액의 50% 범위 내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 기부

유증 및 사인증여, 상속인의 상속 재산 출연 시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시)

해외 기부

미국 거주자(납세자)는 미연방국세청(IRS) 면세승인기관(501-C-3)인 경희국제재단(KHIF, Kyung Hee International Foundation)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참여 안내

| 기부 방법

현금 기부	일시 및 분할 납부, 자동이체 정기 후원(월간·연간)이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기부	주식 출연이 가능하며, 상장 주식은 종가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
유산 기부	유산 전체 또는 특정 재산으로 출연 약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상속 재산을 출연하실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 신탁 상속 계약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기부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출연 금액을 책정하며, 기부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기부	경희국제재단(KHIF)은 미연방국세청 면세승인기관으로 경희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시는 미국 납세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 방법

일반 약정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문자(촬영 후 전송),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및 방문 약정	전화하거나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약정	홈페이지(give.khu.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무통장 입금	편하신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은행 278-810023-98605 국제캠퍼스 하나은행 428-141962-19304
자동이체(CMS)	약정한 은행 계좌에서 지정 기부금액이 (매월) 납입됩니다.
교직원 급여공제	경희대,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은 급여공제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기부자가 요청하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약정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 있는 경희국제재단(KHIF)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해외거주자께서는 대외협력처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캠퍼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 02-961-0932, 2371 **Fax** 02-961-9400 **문자** 1599-3892 **이메일** give@khu.ac.kr

국제캠퍼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학본부 103호
☎ 031-201-3190~1 **Fax** 031-201-3192 **문자** 1599-3892 **이메일** give@khu.ac.kr

지속 가능한 문명건설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경희의 길입니다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서울캠퍼스 TEL 02.961.0931, 2371 FAX 02.961.9554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캠퍼스 TEL 031.201.3190~1 FAX 031.201.3192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E-mail give@khu.ac.kr **홈페이지** http://give.khu.ac.kr